

2006年 2月

교육학(일반사회교육)석사학위논문

남 북한 사회과 교육 내용 비교 분석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일반사회교육전공

송 선 화

남 북한 사회과 교육 내용 비교 분석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Contents of Social
Studies Education Two Koreas

2006年 2月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일반사회교육전공

송 선 화

남 북한 사회과 교육 내용
비교 분석

지도교수 최 성 종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일반사회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합니다.

2005年 10月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일반사회교육전공

송 선 화

송선화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합니다.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인)

2005年 12月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 목 차 >

표 목차

ABSTRACT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3
II. 남·북한 사회과 교육의 이론적 고찰	6
1. 남·북한 사회과 교육과정 및 학제	6
1) 남한의 사회과 교육과정	6
2) 북한의 사회과 교육과정	10
3) 남·북한의 학제	15
2. 사회과 관련 내용의 비교분석 준거	17
III. 남·북한 사회과 교육내용 비교	19
1. 남·북한 사회과 교육내용의 특징	19
1) 남한	19
2) 북한	23
1. 교과명 및 단원명 비교	27
1) 남한	27
2) 북한	30
2. 정치	39
3. 교육	45
4. 대외정책	49

5. 경제	53
IV. 남·북한 사회과 교육내용의 비교결과 및 문제점	59
1. 교육내용의 비교결과	59
2. 교육내용의 문제점	62
1) 남한	62
2) 북한	64
V. 결론	68
참고문헌	71

<표 목 차>

<표 I-1> 남한 교육과정 및 교과서	4
<표 I-2> 북한 교과서	5
<표 II-1> 남한 사회과 교육과정의 변천	9
<표 II-2> 북한 고등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편제변화	13
<표 II-3> 북한 고등중학교 사회과 관련 교과목의 변천	14
<표 II-4> 남·북한 기본 교육제도 비교	18
<표 III-1> 남·북한 정치 비교 요약	44
<표 III-2> 남·북한 교육 비교 요약	48
<표 III-3> 남·북한 대외정책 비교 요약	52
<표 III-4> 남·북한 경제 비교 요약	58

ABSTRACT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Contents of Social Studies Education Two Koreas

Sun-hwa Song

Advisor : Prof. Sung-jong Choi, Ph.D.

Major in General Scienc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One of the most important functions of education is socialization to maintain social system.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Social Study is a representative subject in doing such a job.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sis curriculums and textbooks of the subject i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centering on Social Study in high schools.

This study consists of comparative research on curriculums and textbooks of Social Study in high schools to understand and find out entir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social study, its homogeneity and heterogeneity betwee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The result follows : the object of social of South Korean is to cultivate democratic citizens and that of North Korea is to bring up socialistic citizens. In South and North Korea the curriculums of social studies are exploited as ways to maintain ruling structures of nation, and especially in North Korea, are availed as an instrument of

Kim Il-sung & Kim Jung-il's monolithic thought system. It is a common inclination in these two sides that nation take the lead in developing social studies textbooks.

In these both sides the contents of textbooks about value system are different each other. The textbooks of South Korean contain political, economic and sociocultural sphere evenly, on the basis of knowledge in social science. To cultivate democratic citizen, they have contents to promote the originality and spirit of inquiry. On the contrary North Korea concentrates her effort on political education to cultivate their people as socialistic citizen. To achieve this goal, North Korean textbooks contains mainly monolithic thought system lying stress on two Kim's achievement.

So, the result of the comparative analysis in the social studies object, curriculums and textbooks of South and North Korea indicate that the differences are more common than likeness in education object, notion and the contents of social studies textbook of these two Koreas. In the future of re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the plan for integrating the social studies will be much more difficult than that of any other studies. When South and North Korea achieve reunification, the contents of social studies should be reformed to match with the structure of a new nation. As a preparation of reunification, it is necessary for South and North Korea to research actively on social studies to prevent heterogeneity.

I. 서론

1. 연구의 목적

교육은 특정한 사회문화체계 속에서 문화와 전통을 계승시켜 주고 한 사회의 규범과 생활양식을 학습시켜 사회화와 자아실현을 성취하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특히 사회과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바람직한 인간형성을 직접적으로 추구하는 과목의 특성 때문에 남·북한의 각기 다른 체제를 공고히 하는데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남·북한이 분단된 이후에 많은 부문에서 이질화가 심화되어가고 있다. 교육 부문에 있어서도 이질화 현상이 있어 왔으며, 특히 체제가 서로 다른 사회에서 사회화 과정의 핵심교과라 할 수 있는 사회과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의 이질화는 근본적으로 남한과 북한의 정치 이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치적인 이질화는 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로 확산되어가면서 사회화 과정의 기제라 할 수 있는 교육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교육부문의 이질화는 교육을 통해 기르고자 하는 인간상을 규정하는 교육의 이념이나 목표에 드러나게 된다. 이것은 다시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에 그대로 반영되게 된다. 그러므로 교육과정이나 교과서를 비교하고자 할 때는 교육체제 전반의 이질화 현상에 대한 맥락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남한과 북한 사이의 교육과정이나 교과서를 비교하기에 앞서 그러한 영향을 주게 된 배경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남·북한 사회과 교육의 이질화의 배경으로 첫째, 정치적인 이질화를 들 수 있다. 남한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민주주의를 국가 이념으로 설정하고 북한은 사회주의 노선을 기초로 국가를 성립하고 발전 시켜왔다. 현재 남한의 정치체제는 다당주의 원칙 아래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게 되어 있다. 반면에 북한은 이념적인 면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아울러 그에 입각하여 개

발한 주체사상을 이념적 기조로 하고 있는 정치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다.

둘째, 경제제도의 이질화를 들 수 있는데, 남한의 경제는 자본주의적 구조를 특징으로 하는데 반하여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 이념 속에서 공산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이질성은 경제 관련 교육부문에서 남북한 이질성을 심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사회 문화적 이질화를 들 수 있는데, 북한과 비교해 볼 때, 남한의 사회적 특성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개인의 자유가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개인의 능력에 따른 업적주의 사회를 지향한다는 점 동일 것이다.¹⁾ 이러한 남한 사회는 다원사회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반하여, 북한의 경우는 집단주의에 의한 통제된 사회, 주체 사상만을 인정하는 획일화된 사회, 출신 성분과 당성에 따른 계급주의 사회 등의 사회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결국 정치 제도를 비롯한 경제제도와 정책에서의 이질화는 결국 남·북한 교육 이질화의 출발점이 되었다.

이러한 교육의 ‘차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남·북한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가 전제될 때 가능하며, 진정한 분단 극복도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 학생들이 사회과 교육을 통해 습득하는 가치 개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여 본다면 남북한 교육의 현재를 이해하고 반성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런 맥락 하에서 남한과 북한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사회과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객관적이며 비판적으로 비교 분석하는데 있다.

남한 중심의 ‘사회과’ 개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 사회가 추구하는 이념과 가치, 규범과 제도교육을 위한 ‘사회과’를 북한에서의 김일성·김정일 관련 교과서 전체로 설정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남북간의 괴리감이 큰 사회과 교과교육의 남북한 비교를 통해 ‘차이’를 인정하고, 그 가운데 ‘차이를 극복하는 방법’의 모색이 가능하리라 기대해 본다.

1) 김태완, 「남북 이질성 극복을 위한 통일 교육」, 『교육학 연구』 제33호, 1995, pp.10-1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1장 1절에서 제시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범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① 교육과정

남한의 교육과정은 제7차 고등학교 교육과정안(2001)을 연구범위로 선정했고, 북한의 교육과정은 고등중학교 사회과 관련 교과(1999)의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하였다.

② 교과서

남한 교과서는 고등학교 10학년 사회교과서, 고등학교 심화선택형 11·12학년 정치, 경제, 사회·문화, 법과사회 교과서를 대상하였다.

<표 I-1> 남한 교육과정 및 교과서

교육과정	교육부(2001). 「중학교 교육과정」, 대한교과서주식회사. 교육부(2001). 「고등학교 교육과정」, 대한교과서주식회사.
교과서	교육부(2003). 「고등학교 사회 10학년」,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교육부(2003). 「고등학교 정치」, 법문사주식회사. 교육부(2003). 「고등학교 경제」, 대한교과서주식회사. 교육부(2003). 「고등학교 사회·문화」, 금성출판사주식회사. 교육부(2003). 「고등학교 법과사회」, 교학사주식회사.

남한 교과서와는 달리 북한 교과서는 학년에 따른 교과서의 내용과 지식단계가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학년의 개념이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북한 교과서를 입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학년의 대비를 반드시 필수화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북한의 교과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혁명활동」 고등중학교 1,3학년,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혁명력사」 고등중학교 4,5,6학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 혁명활동」 고등중학교 1,2학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 혁명력사」 고등중학교 4,5,6학년 교과서를 대상으로 삼았다.

<표 1-2> 북한 교과서

과목 및 책명	학 년	낸 곳	발행년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혁명활동	1학년	교육도서출판사	2001
	3학년	교육도서출판사	2001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혁명력사	4학년	교육도서출판사	1999
	5학년	교육도서출판사	1999
	6학년	교육도서출판사	1999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 수님 혁명활동	1학년	교육도서출판사	2001
	2학년	교육도서출판사	2001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 수님 혁명활동	4학년	교육도서출판사	1999
	5학년	교육도서출판사	1999
	6학년	교육도서출판사	1999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남북한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내용 분석과 비교가 가장 주된 연구 방법이다.

연구의 기초 단계에서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분석하는 연구의 방향과 관점을 설정하기 위하여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수집하여 분석한다.

수집 가능한 북한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1차 자료로 하고, 선행 연구 결과를

2차 자료로 사용하여 남북한 사회과 교육 내용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사회과라는 교과목이 존재하지 않은 관계로 북한의 고등학교의 사회과에 해당되는 김일성, 김정일 관련 교과서에서 남한의 일반사회 영역에 해당되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법과사회’의 내용 중 비교 가능한 주요 개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내용 분석의 틀은 본 연구가 남북한 사회과 교과서를 대상으로 사회과 관련 내용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문헌 연구 방법의 대표적 유형인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방법²⁾을 적용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가 북한의 사회과 관련내용을 중점으로 하여 남북한의 사회과 교육 내용을 비교분석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남한 사회과의 우월성을 과시하는 내용을 배제하고 비교의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교과교육의 관점에서 교과명과 단원명의 특징, 내용상의 주요개념과 특징, 내용전개방식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였다.

2) 내용분석은 자료로부터 각각의 상황에 맞는 타당한 추론과 모사(replicable)를 하기 위한 실험 기술이다.

II. 남·북한 사회과 교육의 이론적 고찰

1. 남·북한 사회과 교육과정 및 학제

1) 남한의 사회과 교육과정

남한의 사회과는 사회 현상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사회 지식 습득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익히며, 민주 사회 구성원에게 요청되는 가치와 태도를 지님으로써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육성하는 교과이다. 사회과에서는 가르치고자 하는 민주 시민은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가지고 인권 존중, 관용과 타협의 정신, 사회 정의의 실현, 공동체 의식, 참여와 책임의식 등의 민주적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고 나아가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기름으로써 개인의 발전은 물론, 국가, 사회,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사람이다.³⁾

사회과는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사회 현상에 관한 지식을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비판적 사고력, 창의력, 판단 및 의사 결정력 등의 신장을 강조한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탐구 방법을 활용하여, 학습자 스스로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흥미와 관심을 고려하여 개개인의 수준에 적합한 경험을 제공하는 효율적인 교수 학습 전략을 지향한다. 그리고 학교의 실정에 따라서 지역성과 시사성을 고려하여 지도한다.

이런 특성을 가진 남한의 사회과는 5개의 교육과정 변천을 거쳤으며 이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군정 과도기 (1945년-1946년)로 해방과 더불어 남한에서의 교육은 미군정청에 의해 이루어진다. 1945년 9월 ‘교수요목 및 시간배당 기준령’에 의해 중등학교 사회과는 일제시대의 국민과에 해당되는 수신, 국사, 지리가 공

3) 교육부, 「사회과교육과정 (제7차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별책7])」, 1998, p. 15.

민, 지리 역사과목으로 폐지 개편되었다.

둘째, 교수요목기(1946년-1954년)와 제1차 교육과정기(1954년-1963년)는 초기 사회과 시대로 볼 수 있다. 특히 교수요목기에 남한 최초로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시의 사회과 교육이 도입되었다. 당시의 공민, 역사, 지리 과목이 통합되어 ‘사회생활과’가 신설되었다. 이는 민주 시민의 양성이라는 국가 사회적 요구에 미국의 ‘사회과’가 비교적 이상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새로운 교과인 ‘사회생활과’가 탄생하였다.

제 1차 교육과정기는 한국전쟁의 영향으로 반공과 도의 교육 등 이념교육이 강조되었다.

셋째, 제2차 교육과정기(1963년-1974년)와 제3차 교육과정기(1973년-1981년)는 사회과기 남한 사회에 적응하여 나름대로 정착하는 사회과 정착시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과 교과내용의 성격상 국내외의 정치적, 사회적 변화에 따라 체제옹호와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즉 제 3공화국의 수립이후 체제유지와 국민정신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이념교육을 강조되었다.

3차 교육과정기 사회과는 사회과학의 학문체계와 탐구방법을 중심으로 교육과정 성격을 드러내 원래 통합형 사회과의 주용 영역인 도덕, 국사가 사회과와 동등한 독립교과로 분리됨으로써 파행을 겪게 된다.

넷째, 제4차 교육과정기(1981년-1987년)와 제5차 교육과정기(1987년-1992년)는 민주화의 성숙으로 사회과 교육도 체제옹호의 수단이라는 비난에서 벗어나 사회과의 본질을 추구하기 위한 진통과 노력이 나타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기를 사회과 성숙 갈등 시대로 보고 있다.

다섯째, 제6차 교육과정기(1992년-1997년)와 제7차 (1997년-현재)이후는 내용 배열에서도 통합이 보다 강화되었으며, 종래의 계통적 학문 체계에서 탈피하여 실생활 경험과 사회문제 중심으로 선정 조직되었다. 동시에 사고력과 학습방법, 학습과정이 강조되도록 하였다.⁴⁾

4) 교육부, 앞의 책, pp.4-11.

시행 된지 반세기를 거치면서 미국에서 도입된 교과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통하여 <표 II-1>와 같이 우리의 실정과 풍토에 맞는 교과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고 발전하고 있다.

<표 II-1> 남한 사회과 교육과정의 변천

시기 내용	과도기 (1945- 1946)	초기사회과시대 (1946-1962)		사회과 정착시대 (1963-1981)		사회과 성숙·갈등시대 (1982-1992)		사회과 본질추구시대 (1993-현재)	
	미군정	교수요 목이	1차 교육과 정	2차교 육과정	3차교 육과정	4차교 육과정	5차교 육과정	6차교 육과정	7차교 육과정
사회과	공민 지리 역사	사회 생활	사회	사회	사회	사회	사회	사회 (국사)	사회 (국사)
사회과 관련과 교과목 구성			(도의)	반공· 도덕	도덕 국사	도덕 국사	도덕 국사	도덕	도덕
	분과형	분과형	분과형	분과형	분과형	통합형	통합형	통합형	통합형

<출처: 권오정 외, 「사회과 교육의 구조와 쟁점」, pp.27. >

남한의 사회과 과정 중 일반사회 영역에 해당되는 과목으로 먼저 정치교육의 경우 ‘정치’과목은 사회과의 목적인 바람직한 민주 시민의 양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과목으로서 실생활의 사회·정치적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비중을 둔다. 따라서 정치이론과 실제 생활 또는 학문적 측면과 경험적 측면을 연결시킬 수 있도록 가능하면 사례중심 또는 주제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한다. ‘정치’과목은 특히 학습자가 자기가 관련된 상황이나 사회·정치적으로 중요한 사태 또는 문제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며, 그에 따라 행위 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갖추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는 과목이다.⁵⁾

5) 김형수, 「전공사회」, 서울:형설출판사, 2001, p.125.

‘법과사회’ 과목은 법치 사회를 실현하고, 당면한 법적 문제 사태 해결을 위한 법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육성하기 위한 과목이다. 이 과목에서는 법의 일반 원리, 공법·사법·사회법 체계에 따른 여러 가지 법적 쟁점과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여 민주시민이 갖추어야 할 핵심적 요소인 법적사고력과 문제 해결력 및 적극적인 참여 태도를 육성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한다⁶⁾. 따라서 사회 생활 속에서 법의중요성을 인식하고, 법적 현상에 대한 합리적 분석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며, 법치주의의 원리와 절차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법문화 현상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가지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다.

‘경제’과목은 경제적 사고력과 경제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기 위해 개설된 사회과의 과목이다. 이 과목이 지향하는 민주 시민상은 시장 경제의 경제 원리에 적응하여 효율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이윤을 추구하면서 국민 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합리적, 윤리적 경제인으로서 시장 경제의 운용 과정 이해, 현실 경제 문제의 해결 방법 탐구, 세계 시장 경제와 미래 경제 변동에 대한 전반과 대응 등으로 내용을 구성한다. 따라서 체계적인 경제 지식과 사고력 및 가치관을 토대로 하여 소비자, 생산자로서 책임 있는 민주시민의 구실을 수행할 수 있는 인간을 기르기 위해 내용구성과 학습 방법의 근간을 합리적 의사 결정에 두고, 학습자의 인식 능력에 맞는 내용 선별과 수준 조정, 우리 경제 현실의 이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 이론을 원용 등을 통한 학습 경험의 의미 제고에 강조점을 둔다.⁷⁾

‘사회·문화’과목은 사회·문화 현상을 반성적으로 탐구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민주 복지 공동체를 이룩하기 위하여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민주 시민의 자질 육성을 위해 개설된 사회과의 과목이다. 이 과목은 사회학과 문화인류학을 기반으로 하여 인간의 사회적 행동과 문화의 특성 및 여러 사회 문제 등으로 내용을 구성한다. 따라서 우리 사회를 비롯하여 현대 세계 사회의 속성

6) 차경수, 「현대의 사회과 교육」, 서울:학문사, 1998, pp. 68-71.

7) 정차남, “중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경제윤리교육 내용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pp.34-36.

과 변동 양상을 파악하여, 해결하여 할 문제의 탐구방법과 합리적 의사 결정 능력을 습득하고, 세계화 시대의 미래 지향적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가치·태도를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또, 민주 복지 사회를 이룩하는데 개인이나 집단이 기여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탐색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지성적인 사회 참여 태도를 기르는 데에도 강조점을 둔다.

2) 북한의 사회과 교육과정

일반적으로 교육과정을 통해 국가 및 사회가 추구하는 교육이념과 지향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사회과 교육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교육과정은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된다.

이러한 교육과정에 있어서 남한은 교육과정, 각과 교육과정, 교육과정 편제, 수업지도안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데 비하여 북한은 교육과정이라는 용어는 없다.⁸⁾ 북한에서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문건은 교육강령이라고 하는데 교육강령은 과정안⁹⁾과 교수요강¹⁰⁾으로 구분된다.

북한 고등 중학교 교육과정에는 남한의 도덕·사회 교과와 같은 의미의 교과는 없다. 그러나 도덕·사회과를 넓은 의미에서 공민영역과 지리, 역사 영역으로 나누어 찾아본다면 관련 교과를 나름대로 찾을 수 있는데¹¹⁾, 1986년, 1992년, 1996년 세 차례에 걸쳐 변화된 북한 고등중학교 교육과정 편제를 보면 도덕·사회과 관련 교과를 다음과 같이 찾아볼 수 있다. 1986년에 있어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혁명활동(150시간)」, 「위대한 수령 김일성 원수

8) 한만길, 「통일시대 북한교육론」, 서울:교육과학사, 1997, p.167.

9) 과정안은 우리의 교육과정 총론에 해당하는데, 학과목과 그 목적, 그리고 학년별 배열, 시간배정, 교수형태, 학업진행계획 등을 제시하고 있다.

10) 교수요강은 우리의 교과별 교육과정에 해당하며, 과정안에서 제시된 학과목의 목적과 과업, 교육내용의 범위와 깊이, 교수제목별 시간배정 등을 제시하고 있다.

11) 유균상 외, 「남북한 중등학교 도덕·사회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비교분석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7, pp.13-18.

님 혁명력사(195시간)」,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선생님 혁명활동(112시간)」,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선생님 혁명력사(110시간)」 과목을 들 수 있다. ‘혁명활동’ 과목은 1-3학년에서, ‘혁명력사’ 과목은 4-6학년에서 배운다. 각 과목에 대해 대학기에 시험을 보도록 하고 있는데 「위대한 지도자 김일성원수님 혁명활동」은 다른 과목처럼 대학기 시험을 보지 않는다.

1992년 북한 고등중학교 교육과정 편제를 보면, 도덕·사회 관련 과목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혁명활동」,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선생님 혁명력사」, 「공산주의 도덕」을 들 수 있다. 1992년 교육과정에서는 김일성 교과와 김정일 교과가 1개 교과로 축소되었으며, 그 대신 「공산주의 도덕」 과목이 부활하였다. 이 과목은 1983년 교육과정에 설치되었던 과목인데, 1986년 교육과정에서는 폐지되었다.

1996년 교육과정 개편은 김일성 사후의 김정일체제 강화를 위한 것으로, 관련 교과목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활동(323시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 혁명활동(210시간)」, 「공산주의 도덕(185시간)」이 있다. 특징은 김일성 사후에 대한 호칭이 ‘원수님’에서 ‘대원수님’으로 격상되었고, 김정일의 호칭도 ‘선생님’에서 ‘원수님’으로 격상 되었다.

다음 <표 II-2>는 북한의 교육과정 편제를 시대 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표 II-2> 북한 고등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편제변화

1983년 개정	과목명 / 구분(학년)	주당수업시수					
		1	2	3	4	5	6
1983년 개정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혁명활동	2	2	2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혁명력사				2	2	2
1986년 개정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혁명활동	2	1	1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혁명활동				2	2	2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혁명활동	1	1	1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혁명력사				1	1	1
1992년 개정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혁명활동	1	1	2	2	2	3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혁명력사	1	1	1	1	1	1
1996년 개정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혁명활동	2	1	1	2	2	3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 혁명활동	1	1	1	1	1	2

또한 북한 사회과 교육과정을 교과목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1968년 이후에 북한 사회과는 체제유지와 정치 사상적 교양을 목적으로 하는 교과목으로 김일성·김정일 관련 과목이 생겨나 뚜렷하게 자리매김하기 시작한다. 이는 1983년의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살펴볼 수 있으며, 1986년 이후로는 김정일 과목이 김일성 과목과 동일한 비중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즉, 1986년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서 김정일 과목을 정규과목으로 신설하였다. 또한 1992년 교육과정 개정기에는 정치사상 관련 교과목의 변화가 나타나며, 마지막으로 1996년 교육과정 개정기는 김정일 우상화 강화기로 볼 수 있다. 이는 김일성의 사망으로 김정일의 권력 승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1996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북한의 사회과 교육과정의 특징은 정치사상교육에 관한 강조를 비롯하여 김정일 중심의 우상화 교육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도덕·사회과 관련 교과목 변천을 교육과정 개정기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표 II-3>과 같다.¹²⁾

<표 II-3> 북한 고등중학교 사회과 관련 교과목의 변천

1956	1968	1983	1986	1992	1996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혁명 활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혁명 활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혁명 활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혁명 활동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 수님 혁명 활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혁명 력사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혁 명력사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혁 명 력사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혁 명력사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혁 명력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 님 혁명 력사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혁 명 활동		
	공산주의 도덕	공산주의 도덕		공산주의 도덕	공산주의 도덕
헌 법		현행 당정책			현행 당정책
	정치경제학	특 강			
력 사		력 사	력 사	력 사	력 사
지 리		지 리	지 리	지 리	지 리

또한 북한 교육의 궁극적 과제는 공산주의 혁명인재를 양성하는데 있다. 이를 가장 잘 반영한 함축적인 문건으로는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¹³⁾가 있다. 따라서 공산주의적 인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인간을 키우는 사회주의

12) 한만길, 「통일시대 북한교육론」, 서울:교육과학사, 1997, p.164.

13) 김일성,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1997.9.5.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 14차 전원회의, 통일원(1992), 「북한개요」(이하 테제로함.)

교육은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 원리를 철저히 구현하는 교육사업을 펼쳐야 하는데, 그 기본방향은 혁명사상의 고취(정치사상교육), 과학기술 교육(직업교육), 건장한 체력 증진(군사교육)에 두고 있다. 이들 세 방향이 통일적 과정으로 진행될 때 공산주의 혁명 인재가 양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교육내용은 사람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하며 지덕체를 겸비한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키울 수 있도록 구성하며, 그 내용은 혁명성으로 일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초·중·고등 교육을 막론하고 일관되게 적용되는 원칙이다. 사회주의 교육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깨우쳐 주는 교수교양, 이론과 실천 및 생산노동과의 결합, 조직생활과 사회정치활동의 강화, 학교전 교육 학교교육 성인교육 사회교육의 결합을 중요한 교육방법으로 내세우고 이에 따른 교육사업을 진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¹⁴⁾

북한 사회주의교육에서는 비록 사회과(Social Studies)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남한의 사회과교육에 속하는 것으로 정치사상교육(정치교육), 역사교육과 지리교육이 있다. 이 중 정치사상교육은 사회주의 혁명에 적합한 시민, 북한구조에 적합한 인간을 기르기 위해 가장 중시되는 과목이며, 역사와 지리는 독립된 교과로 설정하고 있다.

이 중 남한의 일반사회 영역에 해당되는 법 교육, 정치교육에 해당되는 과목은 북한의 교육과정상 공식적인 관련과목이 없다. 사회주의 혁명 기지로서의 집단주의 체제 유지를 정당화하는 혁명이데올로기 정치사상교육이 주축을 이루는 사회주의교육에서 정치현상이나 법 체제를 반성적으로 탐구하여 비판능력을 지닌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정치교육이 용인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의 법교육과 정치교육은 현행 당 정책과 같은 과목을 통해 법과 정치현상에 대한 사실적 지식으로 학습되기는 하나 오히려 정치사상교양교육을 통해 전체 교과에 녹아들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법 교육은 노동계급의 정치적 대변자이며 대표자인 당 정책의 한 표현형식이며 계급독재를 공고히 하기 위한

14) 윤덕홍, 「남북한 사회과 교육과정 비교」, 『경상대 민족통일논집』, 제14호, 1998, p.17

위력적인 무기로서 그 존재가치가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인권보장과 법익실현, 법적 문제해결능력과 법적 사고력을 키워 주기 위한 법교육과는 거리가 멀다, 또한, 북한체제의 사상적 우월성을 보이기 위한 내용이 주축을 이룬 정치교육 역시 체제의 수호와 옹호를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북한의 경제교육의 경우 경제교육의 지침과 경제 운영의 방향을 북한 「사회주의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 헌법에 명시한 경제체제를 유지하려는 북한 사회주의교육은 테제에서 밝힌 바와 같이 모든 계급을 노동계급화하고 교육과정에 노동을 필수적인 것으로 반영하여, 이론과 실천을 결합함으로써 산지식을 지닌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를 키우고 있다.

3) 남·북한의 학제

남북한의 사회과 교육과정 체제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학제를 먼저 비교하여 고찰해보고 그 가운데 남한의 사회과에 해당되는 교과목의 교육내용을 파악함으로써 북한의 사회과 교육과정을 검토해보기로 한다.¹⁵⁾ 남·북한은 분단이후 서로 상이한 학제를 유지해옴으로서 교육에서의 이질성이 커진 것이 사실이다. 먼저 학교 전 교육단계를 보면 남한은 유아원 단계(3-4세)와 유치원 단계(5-6세)를 두고 있다. 학교 전 교육단계를 보면 남한은 명칭만 달리하고 있고 나이에 따라 4년간의 교육기간을 두고 있다. 남한과 북한은 초등학교를 7세에 입학하도록 되어 있으나 남한이 6년제인데 비해 북한은 4년제로 하고 있다. 중등학교는 남한은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나누고 있으나 북한은 중학교로 되어 있고, 학제는 총 6년으로 같다.

북한의 기본 학제를 초·중등학교·대학교에 해당하는 것을 남한과 비교하여 정리하면 <표 II-4>과 같다.

15) 윤덕홍, 「남북한사회과 교육과정 비교」, 『경상대 민족통일논집』, 제14호, 1998, pp.6-9.

<표 II-4> 남·북한 기본 교육제도 비교¹⁶⁾

남한		북한		
고 등 교 육	대학원 (석사 2-3년, 박사 4-5년)	연구원(3-4)		고 등 교 육
	전문대학 (2-3)	일반대학(4) 교육대학(4)	일반대학 (4-6)	
중 등 교 육	고등학교(3)	교원대학(3)	고등전문학 교 (2-3)	중 등 교 육
초 등 교 육	중학교(3)	중학교	고등반(2)	
	초등학교(6)			중등반(4)
			소학교(4)	
학 교 전 교 육	유치원	유치원	높은반(1) 낮은반(1)	학 교 전 교 육
	유아원		탁아소	

16) 전숙자, 「북한 공산주의 도덕 교과서에 나타난 인간관」, 『사회과교육』 제23호, 1997.

2. 사회과 관련 내용의 비교분석의 준거

본 연구는 남한의 고등학교와 북한의 고등중학교¹⁷⁾ 교과서를 대상으로 비교 가능한 사회과 관련 내용(일반사회 영역-정치, 경제, 사회문화, 법과사회)을 분석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과 틀을 사용한다.

남·북한 사회과 관련 내용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석할 대상으로서의 내용 선정 기준을 마련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내용 선정 기준은 분석하고자 하는 내용을 남·북한 사회과 교과서의 내용 중 비교 가능한 개념을 뽑아 비교 하고자 한다. 다만 남한 사회과 관련 내용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자칫 남한의 우월성을 전제로 하여 이를 확인하는 연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과 교육의 본래 목적에 맞는 보편적인 내용 요소들을 최대한 고려할 것이다.

북한의 사회과와 남한의 사회과는 다르게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개개 항목별 분석 체계를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내용 분석의 틀은 본 연구가 남북한 사회과 교과서를 대상으로 사회과 관련 내용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문헌 연구 방법의 대표적 유형인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방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내용 분석을 교과서 분석에 이용하려면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 그리고 혼합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양적 분석이란 이미 주어진 준거에 따라 어떤 메시지나 주제에 다루는 데에 할애된 지면의 분량이나 문장 (또는 단어, 문단, 단원)의 수를 양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말한다.¹⁸⁾ 질적 분석은 각각의 문장 또는 메시지에 담겨져 있는 의미 체계를 귀납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이다. 이 경우 연구자의 주관이 잘못 개입될 우려가 있으며, 따라서 교과서의 내용 분석을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분석 방법을 상호보완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17) 북한은 2002년에 고등중학교를 중학교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으로 쓰여진 고등중학교 교과서는 2001년에 출판된 것이므로 이하 명칭을 고등중학교로 표기할 것이다.

18) 손충기, 「연구방법론」, 서울:동문사, 2001, p.201.

있다.¹⁹⁾ 본 연구에서 남·북한 교과서를 분석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방법을 쓰
고자 한다. 따라서 내용 분석의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다음의 단계로 분석 할
것이다.

첫째, 남북한의 교과명과 단원명을 분석 할 것이다. 남한과 북한의 각각의 교
과명에 나타나는 교과 의 성격을 파악하고, 단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
펴보고 사회과 관련된 내용으로 선정된 내용이 어떤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학습방법과 관련해서 어떤 방식으로 제시되고 있는지 기술한다.

둘째, 주요 개념 및 주요 내용을 분석할 것 이다. 이는 남북한 사회과 교과서
내용 중 비교 가능한 개념(정치체제, 교육, 대외정책, 경제체제)을 뽑아 각 교과
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용해 제시하도록 한다.

그 후, 남한 교과서와의 비교 분석 결과의 해석을 통해 북한 사회과 관련 내
용의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해석한다.

19) 차배근, 「사회과학 연구방법」, 서울:동문사, 1981, pp.277-278.

Ⅲ. 남·북한 사회과 내용 비교

1. 남·북한 사회과 내용의 특징

1) 남한

① 정치

‘정치’ 과목은 민주 시민의 자질 육성과 바람직한 가치관 확립을 위해 개설된 사회과의 심화 선택 과목이다.

구체적으로 정치 교육내용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10학년까지 학습한 정치현상 이해를 위한 개념과 원리, ‘인간 사회와 환경’에서 제시된 타 사회과학 분야의 지식과의 계열성을 고려하여 정치 현상의 제도적 측면(형식적 차원)과 동태적인 정치 과정(과정적 차원), 그리고 정치적 쟁점과 문제를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심화된 개념과 원리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둘째, 학습자의 요구나 지적수준을 고려하여, 한국의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동태적인 과정을 이해하고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정치적 쟁점을 학습하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정치’ 과목을 학습하는 학생들은 2~3년 후면 참정권을 가지는 명실상부한 시민이 된다. 이러한 권리의 주체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쟁점학습이 이루어지도록 내용을 제시하였다.²⁰⁾

셋째, 정치현상을 동태적으로 이해하고, 현실에서의 정치적 쟁점과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데 필요한 학습 경험을 중심으로 내용을 선정하였다.²¹⁾ 이 점에서 ‘(2) 정치 과정과 참여’가 이 과목 내용의 중심을 이룬

20) 이은숙,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정치교육의 내용분석”,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p.22.

21) 교육부, 앞의 책, pp.234-251.

다고 할 수 있다. ‘(1) 시민 생활과 정치’의 핵심적인 내용인 민주주의는 ‘정치 과정과 참여’의 규범적 준거라 할 수 있으며, ‘(3) 우리나라의 민주 정치’의 내용은 ‘정치과정과 참여’가 이루어지는 한국 정치의 제도적 틀이 무엇인가를 다루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5) 정치 발전의 과제’는 ‘정치 과정과 참여’가 지향할 바를 다루는 내용 영역이다.

넷째, 지식 정보화, 세계화 등의 사회 변화에 적응하고 이러한 변화를 창조적으로 주도하는 미래 시민, 세계 시민의 자질을 기르기 위한 현실성 있으면서도 미래 지향적인 경험을 강조하였다. ‘정치과정과 참여’의 각 주체들에서는 시민으로서의 권리 의식과 책임 의식을 기르는 내용을 중시하였고, ‘(4) 국제 사회와 정치’는 특히 ‘세계화’가 한국 사회와 한국인들에게 의미하는 바를 비판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② 법과 사회

법 교육의 내용은 앞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 법적 사고력 및 문제 해결 능력의 개발, 책임의식 및 능동적 참여 태도 함양 등의 목표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법 교육의 내용은 법학 총론 체계에 의한 법률 해석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며, 실생활과 직결된 문제를 중심으로 학생으로 하여금 법적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 이해와 사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²²⁾ 법적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 이해와 사고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법 교육의 내용이 학생으로 하여금 개별 법규에 대한 이해에 앞서 첫째, 기본적으로 법은 무엇이며, 둘째, 법은 어떻게 생성, 해석, 적용되며, 셋째, 법의 절차에 관련된 기관 및 행위자 간의 상호 관계는 어떠한지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학생들은 법이 부여하는 권리의 정당한 사용과 이를 수반하는 의무를 법적 절차에 따라 적절히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2) 김범주외, 「고등학교 법과사회 교사용 지도서」, 서울:교학사, 2002, p.22.

이러한 내용은 법의 개념과 이념, 법의 관점, 법의 체계화 관련된 내용으로 요약된다.²³⁾

첫째, 법의 개념과 이념에서는 법의 핵심적 내용, 적용 범위, 기능 등에 관한 내용이 다루어진다. 특히, 법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논의가 내용에 포함되어있는데, 이는 학생의 비판적 사고력의 배양과 관련된 것이다.

둘째, 법의 제정, 해석, 적용을 포함하는 법의 과정에 대한 개략적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법을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여 이해하기보다는 법도 다른 사회 제도와 마찬가지로 정치제도, 관습 및 문화의 산물이라는 인식이 가능하도록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이 역시 적용될 법의 정당성 문제와 관련하여 학생의 비판적 사고력의 함양을 위한 것이다.

셋째, 행위자(법관, 분쟁 당사자, 경찰 및 검찰 등), 또는 기관(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등)의 성격과 기능 및 상호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이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문제를 누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와 같은 실제적인 응용 능력을 학생들에게 배양시켜 주기 위한 것이다. 요컨대 학생이 살고 있는 사회와 별개의 것으로서의 법체계가 아닌 실생활과 밀접한 것으로서의 법체계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③ 경제

‘경제교육’의 경우 현실 경제의 인식, 경제사회 변동의 전망과 대응에 필요한 경제적 사고력과 의사결정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실용적 지식의 체계적 이해와 실천적 기능 숙달 및 바람직한 가치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짜여져 있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는 경제 현상에 대한 객관적 지식자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으로 의미를 형성해 간다는 총괄적인 목표는 두 가지 측면에서 강조되고 있다. 인지적 측면의 경제적 사고력, 의사 결정력의 신장과 함께 정의적 측면에서 경제 주체의 바람직한 경제 윤리 의식의 내면화를 통해 올바른

23) 교육부, 앞의 책 , pp.211-225.

른 가치 판단을 내리는 민주 시민 양성을 도모하고 있다.²⁴⁾

이러한 ‘경제’과목의 내용이 다섯 개 단원으로 선정 조직되어 있다. 이 내용의 특징은²⁵⁾ 첫째, 경제 현상에 대한 이해와 경제 문제와 이의 해결을 다루고, 둘째, 시장과 경제 활동을 중심으로 가격의 기능과 변동, 시장 기능의 보완 대책 등을 포함하고 있다. 셋째, 각 경제 주체의 합리적 선택이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 넷째, 각각 국민 경제 활동과 세계 경제 시장에서의 한국 경제의 앞날을 다루고 있다.

④ 사회 문화

‘사회 문화’과목은 사회 문화의 관련분야인 사회학, 문화 인류학 등의 학문적 성과와 방법의 지식 습득에만 머무르지 않고,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 분석, 종합, 평가하는 능력과 사회현상의 과학적 탐구 및 가치 판단 능력을 함양하도록 하고 학생들의 생활 및 경험과 조화를 이루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²⁶⁾

또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탐구과정을 거쳐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며, 민족 문화의 특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민주 복지 사회 건설과 민족 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는 태도를 갖도록 유의하였고, 국제화, 세계화, 정보화의 미래 사회를 전망해 보고, 세계 시민으로서의 능력과 태도를 갖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 문화’과목의 내용 특성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⁷⁾

첫째, 사회 문화 현상을 다양한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유의하고, 사회 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과 탐구과정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이해시킨다. 특

24) 김진영외, 「고등학교 경제 교사용 지도서」, 서울:대한교과서, 2002, p.15.

25) 교육부, 앞의 책, pp.256-269.

26) 김태현 외,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사용 지도서」, 서울: 금성출판사, 2002, p.24.

27) 교육부, 앞의 책, pp.276-288.

히, 탐구과정에서 가치문제가 왜 중요한지를 인식시키도록 한다.

둘째, 개인의 사회화 과정, 개인과 사회의 상호관계를 탐구한다. 이를 토대로 공동체 생활의 중요성과 지역 사회 발전 및 국가 공동체 발전과의 상호관계를 파악하고,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공체 생활의 문제점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탐구한다.

셋째,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우리의 민족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민족 문화 창달에 유의 하고, 사회 문화에 대한 폭넓은 안목을 갈러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해소시킨다.

넷째, 사회학과 문화 인류학의 학문 내용 체계를 바탕으로 하되, 학제적인 접근을 통하여 사회 문화 현상을 폭넓게 이해시킨다.

다섯째, 사회문제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탐구과정을 통하여 대안을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 탐색,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여섯째, 사회 변동과 발전의 원리를 이해하고 미래 사회를 합리적으로 전망해 보고, 미래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제반 문제를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가지도록 한다. 또, 남북통일을 위한 사회 문화적 측면을 예상해 보고 국가와 민족의 미래에 기여하는 삶의 방식을 모색하도록 한다.

2) 북한

① 정치 법 교육

정치사상 교양은 학생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교육으로써 학생들을 혁명과 건설의 참다운 주인이자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혁명 인재로 배양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때 정치사상교양은 당 정책교양, 혁명전통교양, 혁명교양, 공산주의 교양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북한 교육 당국은 학교 및 사회교육활동을 통해 학생들을 교화 강습시킴으로써 인간을 개조해 나갈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이

러한 교육을 통해 공산주의 혁명 사상으로 각 개인들을 무장시키고 궁극적으로 혁명화, 계급화, 공산주의화되게 인간개조를 실현시켜 나간다는 것이다.²⁸⁾

법에 관한 학습은 정치사상교육의 일부로써 독자적인 법지식의 학습이 주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혁명을 위한 정치수단으로써 계급혁명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학습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 관한 독립적인 학습의 필요성은 일체 인정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실제로 1980년대 후반 들어서 동구 공산권국가들의 자유화, 개혁의 물결 및 1990년대 초부터 밀어닥친 페레스트로이카(개방)²⁹⁾와 글라스노스트(공개)³⁰⁾에 의한 소련체제붕괴 등의 외부적 충격으로 인해 북한은 정치교육의 전 과정을 새롭게 검토하고 더욱더 폐쇄적이고 경직된 주체사상 강화교육으로 나아갔다.

새로운 체제윤리가 북한 정치교육 및 법질서 유지에서 유난히 강조되고 있는데 그것은 ‘사회 정치적 생명체론’과 ‘우리식 사회주의’ 논리이다.³¹⁾

‘사회 정치적 생명론’의 중심 내용은 수령과 당과 대중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생명을 갖춘 유기적 통일체라는 것이다. 사회를 생명체로 비유하여 인민은 세포, 당은 중추신경, 그리고 수령은 뇌수와 같은 존재로 설명하면서 뇌수인

28) 최인화, 「북한의 법, 정치교육」, 『사회과 교육 26호』, 1993, pp.238-239.

29) 1985년 4월에 선언된 소련의 사회주의 개혁 이데올로기를 말한다. 페레스트로이카는 스탈린주의의 문제점에서 시작하여, 소련이 정치과정상 사회주의 원칙인 참여와 분배적 사회주의 원칙을 채택하지 않은 한 사회주의 체제 자체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고르바초프에 의한 페레스트로이카는 소연방이 해체되면서 사실상 사회주의 체제의 포기 및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는 현재 사회주의의 개혁으로서가 아니라 사회주의의 붕괴를 촉발시킨 원인으로 여겨지고 있다.

30) 소련에서 종래에는 반소적이라고 해서 금지된 B.C.파스테르나크, A.I.솔제니친 등의 문학작품이나 영화·회화·연극 등이 공개되었다. ‘역사의 공백을 메우자’라는 표어 아래 스탈린 시대의 진실이 밝혀지고, N.I.부하린과 A.I.루이코프 등의 명예회복 및 L.트로츠키 저작의 부분적인 소개가 이루어졌다. 또, 현상황을 혹독하게 비판하는 발언, 비공개의 통계를 원자력잠수함의 사고 등도 보도되었고, 당협의회와 인민대의원대회도 텔레비전으로 중계되었다. 글라스노스티의 목적은 수동적인 국민을 활성화하고 보수관료와 사회의 정체 부패를 비판하는데 있다.

31) 최동직, “북한정치교육의 수행체계와 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2. pp.62-63.

수령이 교시에 따라 인민과 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독재정치정당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우리식 사회주의’ 논리도 1980년대 후반부터 전 세계에 일고 있는 사회주의 세력의 퇴조와 몰락으로부터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옹호하고 방어하기 위한 논리인데 합리적이고 이지적인 윤리라기보다는 북한인민의 심정적 동조를 이끌어 내기 위한 민족주의 및 혈통주의 이념과 감정에 호소하는 윤리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북한의 정치교육의 주 내용은 이 같은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 및 변화된 공산권 세계에서 적용 방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고 있지만, 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첫째, 혁명적 세계관을 키워줄 수 있는 당 정책 교양과 혁명전통교양(김일성, 김정일의 혁명활동등), 그리고 주체사상교양 등이 중심이 되고 있다.

둘째, 계급 투쟁과 혁명의 적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하고 증오심을 키워줄 수 있는 내용(악덕지주와 일제 침략자들의 만행과 이를 타도하는 프로레타리아 혁명등)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집단주의 정신을 고취하는 노동일예의 헌신적 참여와 애국심, 민족적 긍지를 나타내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넷째, 프로레타리아 계급의식의 고양과 사례의 소개하고 있다.

다섯째, 사회주의 범무생활의 의도적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② 경제교육

북한에서는 개별경제주체가 자신의 경제적 삶이나 경제제도에 관련된 기본 경제원칙과 경제적 가치를 이해하고, 합리적 경제활동을 위한 경제적 기능을 익히며, 이를 통해 올바른 경제의사를 행하고 자신이 속한 경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침으로 삼고」, 「사회주의

적 생산관계와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하여」, 「국가와 협동단체만이 소유한다.」는 경제교육의 지침, 경제운영의 방향 및 소유관계를 밝히고 있다. 이의 실현을 위한 수행방법으로서 「국가는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경제로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인민경제를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로 만들며 완전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물질기술적 토대를 쌓기 위하여 투쟁한다」고 명시하고 있다.³²⁾

이를 토대로 북한에서 사회주의 경제교육이 수행되는 과정은 최상위에 국가를 두고 이를 유지시켜주는 신성시된 주체사상과 사회주의 체제를 중심으로 변증법적 유물사관에 바탕을 두고 계급투쟁을 통해서만 공산주의사회가 건설 가능하다고 하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이론화하여 사회주의 신념과 문화를 지닌 노동자를 양성함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에 봉사하는 경제체제 교육, 생산경제 교육, 소비경제교육의 단계로 진행된다. 또한 매 학습단원마다 김일성 교시, 김정일 말씀을 학습단원의 첫머리나 학습내용의 중간 중간에 고딕체로 넣어 이를 설명해나가는 감화형식의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하여 북한에서는 이론과 실천의 통일이 과학의 참된 가치를 형성한다고 보고 그들은 정치 경제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을 주장하고, 이 경우 자신들이 억압받는 자들의 편에 선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그들은 사회과학내 학문적 분화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32) 김상규, 「북한의 인민학교, 고등중학교 교과서에서 나타난 경제교육」, 『사회과 교육 26호』, 1993, pp.217-220.

2. 교과명 및 단원명 비교

1) 남한

남한의 사회과는 “사회현상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사회 지식 습득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익히며, 민주사회 구성원에게 요청되는 가치와 태도를 지님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육성하는 교과”라고 정의하고 있다.³³⁾

특히, 건전한 시민적 자질의 육성과 인간 형성을 강조하기 위해 고등학교 2-3학년예 개설된 ‘정치, 경제, 사회문화, 법과사회’라는 과목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다.

남한 사회과 교과서는 표지와 화보가 학년에 따라 내용에 맞는 원색 표지 사진과 화보 3장씩 실고 있다. 매 학년 머리말이 있어 교과서의 특징과 활용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단원은 대단원, 중단원, 중단원에 따른 주제들로 나누어져 있다. 대단원의 첫 머리에는 <이 단원의 공부를 위하여>를 두고 그 단원 전체를 상징할 수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기술하여 학습목표와 방향을 확인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중단원에는 학습 목표에 해당하는 <학습의 주안점>을 두어 학생들이 그 단원에서 학습해야 할 목표를 뚜렷하게 제시하고 있다. 중단원은 3-4개의 주제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다. 학습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진, 삽화, 지도, 이야기 상자 등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필요한 부분마다 학생활동인 <탐구활동>을 넣어, 학생 스스로 탐구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학습활동을 돕고 있다. 특히 학습해야 할 주요 개념이나 사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고딕체로 인쇄하고 있다. 중단원 끝부분에는 <단원정리>를 실어 학습한 내용을 다시 확인, 정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 외에도 어려운 내용이나 용어는 각주를 달아 보충 설명하고 있다. 교과서 끝부분에는 <찾아보기>를 제시하고 있다.

33) 김형수, 「공통사회 I 사회과교육론」, 서울:형설출판사, 2002,p.171.

① 정치

「정치」 과목은 고등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심화선택 과목이다. 「정치」 과목은 다양한 이익들이 경쟁하는 사회에서 시민으로서의 자유와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기르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정치적 문제를 합리적이고 도덕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 책임 있게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구체적인 정치생활의 경험들을 교과내용에 포함한다.³⁴⁾ 특히, 한국 정치뿐만 아니라 국제정치의 여러 쟁점들을 다룸으로써 정치현상에 관한 지식을 학습자 자신의 것으로 구체화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다. 정치 현상을 정태적인 것이 아니라 동태적인 현상으로 인식하도록 구체적인 생활 경험에서의 사례들을 활용하여 기본 개념과 원리를 제시하도록 하였다.

「정치」는 총 5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단원에 따른 중단원이 보통 3-4개 정도로 이루어져 있다. 정치라는 추상적인 학문을 「정치」 과목에서는 ‘정치학의 일반적 이론, 정치과정론, 정치제도론, 정치발전론, 국제정치’라는 다섯 영역을 각 단원별로 연계하여 구성되어 있다. 즉 I 단원인 ‘시민생활과 정치’는 정치학의 일반이론을, II 단원인 ‘정치과정과 참여’는 정치과정론을, III 단원인 ‘우리나라의 민주정치’는 정치 제도론을, IV 단원인 ‘국제사회와 정치’는 국제정치론, V 단원인 ‘정치발전의 과제’는 정치발전론의 내용을 큰 틀로 하여 내용을 이루고 있다.

북한의 사회과 관련 내용과 비교 가능한 개념으로는 I 단원 중 네 번째 중단원인 ‘민주정치와 정부 형태’와 II 단원의 세 번째 중단원인 ‘정당과 이익집단’을 비교 근거로 찾을 수 있다.

② 법과사회

34) 김형수, 「전공사회」, 서울:형설출판사, 2001, p.221.

「법과사회」 과목은 법치사회를 실현하고, 당면한 법적 문제사태 해결을 위한 법적사고력과 문제해결능력을 육성하기 위해 신설된 사회과 심화선택과목이다. 「법과사회」 과목은 법의 일반 원리, 공법·사법·사회법 체계에 따른 여러 가지 법적 쟁점과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여 민주시민이 갖추어야 할 핵심적 요소인 법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능력 및 적극적인 참여 태도를 육성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다.³⁵⁾

총 5개의 대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단원에 따른 중단원이 3-5개 정도로 이루어져 있다. 「법과사회」 과목은 보통 ‘법의 일반 원리와 헌법, 공법, 사법, 사회법’을 고등학생 수준에 맞게 생활법률 과 쉬운 용어로 설명하고 있다.

북한의 사회과 관련 내용과 비교 가능한 개념으로는 교육에 대해 설명하는 III단원의 중단원 중 ‘학교 생활과 법’에서 교육법이 비교 근거로 찾을 수 있다.

③ 경제

「경제」 과목은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른 경제적 소양과 유능을 심화할 수 있도록 개설된 사회과의 심화 선택 과목이다. 「경제」 과목은 ‘경제 기본 문제와 경제 현상에 대한 이해를 비롯하여 국민경제 현상의 총체적 현상을 토대로 경제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합리적 의사 결정 능력의 함양, 시장 경제 하에서의 자원 배분과 시장 실패 대책, 경제 주체는 물론 국민 경제 발전에 필요한 경제 주체의 합리적 선택, 국민 경제의 순환 과정과 경제 변동 양상의 동태적 분석을 통한 당면 문제의 원인과 대책, 그리고 세계 경제 사회에서의 상호 의존관계와 경제 협력에의 동참’ 등의 내용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경제」 과목은 총 5개의 대단원으로 구성 되어 있고, 단원에 대한 중단원이 2-3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북한의 사회과 관련 내용과 비교 가능한 개념으로는 경제체제 대해 설명하는 I 단원의 중단원 중 ‘경제체제의 변천과정’에서 경제체제의 차이에 나온 부분이 비교 근거로 찾을 수 있다.

35) 교육부, 앞의 책, p.212.

④ 사회·문화

「사회·문화」 과목은 사회·문화 현상을 반성적으로 탐구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민주 복지 공동체를 이룩하기 위하여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민주 시민의 자질 육성을 위해 개설된 사회과의 심화 선택 과목이다. 「사회·문화」 과목은 ‘사회학과 문화 인류학을 기반으로 하여 인간의 사회적 행동과 문화의 특성 및 여러 사회문제’ 등으로 내용을 구성한다. 사회과학의 연구 성과를 도입할 때에는 일반화된 이론을 선별하여, 실제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재구성해야 한다.

총 6개의 대단원으로 구성 되어 있고, 대단원에 대한 중단원이 2-3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북한의 사회과 관련 내용과 비교 주요 내용은 남북한 대외관계에 따른 국제화와 세계화를 비교근거로 삼을 수 있다.

2) 북한

북한에서는 ‘사회과’라는 과목 자체의 명칭은 없으나, 사회주의 혁명에 적합한 시민을 기르기 위해 필요한 과목을 설정하여 강조하고 있다.

북한 사회구조에 적합한 인간을 기르기 위한 과목 중 대표적인 과목이 김일성·김정일 관련과목이다.

북한의 교과서는 표지, 차례, 단원내용으로 매우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다. 단원은 대부분 과로 표현되어 있어 단순하다. 김일성, 김정일 혁명력사 과목의 경우에만 단원이 장과 절로 구분되어 있고 절에는 2-3개의 주제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매 단원 김일성의 교시와 글, 김정일의 말씀을 인용하여 학습을 돕고 있다. 인용된 글인 김일성의 교시나 김정일의 말씀은 본문보다 큰 고딕체로 쓰여있다. 김일성, 김정일 이름도 본문보다 큰 활자로 인쇄되어 있다. 단락의 구분이 문장단위로 나뉘어 있어 한 쪽 분량의 내용이 10개 내외의 단락으로 나뉘어 있다. 사진, 삽화, 지도가 함께 제시되어 있으나, 양은 많지 않다. 전체 쪽

수는 많은 것이 180쪽 적은 것이 50쪽 정도의 분량이지만 단원구분이 단순하고 사진, 삽화의 분량이 적고 학생활동 영역이 없기 때문에 적은 편은 아니다.

① 김일성 관련 교과서

여기서 분석하는 교과서는 고등중학교 1-3학년 김일성 혁명활동과 4-6학년의 김일성 혁명력사이다. 구체적으로 고등중학교 1학년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혁명활동」(2001년판), 3학년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혁명활동」(2001년판), 4학년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혁명력사」, 5학년(1999년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혁명력사」, 6학년(1999년판)이다.

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 원수님 혁명활동 (1학년)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활동1」은 김일성의 생애와 업적에 대한 미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1학년의 내용은 1913년 김일성의 탄생부터 1945년 광복까지의 기간을 다루고 있다.

전체 구성은 총 40과로 되어 있으며, 한 과의 분량은 대체로 2-6쪽 정도로 총 쪽수는 143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과서의 첫 부분에는 머리말이 수록 되어 있는데,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령님의 혁명력사는 수령님의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력, 고매한 덕성과 투쟁업적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백과전서작인 혁명의 교과서입니다.>>

.....고등중학교 1학년용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활동」교과서는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위대한 태양으로 탄생하신 때로부터 조국광복을 이룩하신 때까지의 혁명활동 가운데서 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사랑을 보여 주는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학생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활동」 과목학습을 잘하여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혁명사상과 대원수님께서 빛나는 승리로 이끄신 투쟁들, 전사들과 인민들에게 돌려 주

신 뜨거운 사랑을 깊이 알고 위대한 원수님께서 이끄시는 내 나라, 내 조국을 온 세상에 빛
내일 혁명가로 자라나야 하겠습니다.” 36)

이상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과 경모의 마음은 거
의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활동1」
은 남한의 사회과 관련 교과와 비교할 만한 비교 근거를 찾을 수가 없으며, 김
일성 우상화에 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나.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활동」(3학년)

고등중학교 3학년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활동」 교과서는 1960
년대부터 김일성의 생의 마지막까지의 기간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체 과(Lesson)의 구성은 총 23과로 되어 있으며, 한과의 분량은 대체로
2-6쪽 정도로 총 쪽수는 71쪽으로 되어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활동3」은 남한의 사회과 관련 내용과
비교 가능한 북한의 경제계획에 대한 내용이 비교적 많이 수록되어 있다. 이를
나타내는 과(Lesson)으로는 제1과 ‘온 나라를 철벽의 요새로’, 제8과 ‘6개년계
획의 돌파구를 여시기 위하여’, 제20과 ‘자력갱생을 잘하는 공장으로 이끄시여’
가 있다. 또한, 현재의 북한의 의무교육 11년제를 확립시킨 내용 역시 「위대
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활동3」에 나타나있다. 그에 해당되는 과
(Lesson)로는 제13과 ‘11년제의무교육의 넓은 대문으로’가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활동3」는 고등 중학교 5-6학년의 「위
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력사」 과목을 학습하는데 기초가 되는 과목이
며, 북한에서는 주체혁명 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완성해 나갈 공산주의 혁명
가로 준비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과목이라 할 수 있다.³⁷⁾

36)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활동」, 『고등중학교 1』, 평양:교육도서출판사,
2001, p.3.

37) 유균상 외, 「남북한 중등학교 도덕·사회과 교과과정 및 교과서 비교 분석 연구」,

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력사 4학년

고등중학교 4학년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력사」 교과서는 1912년 4월부터 1960년 12월까지의 김일성의 행적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교과서의 주된 내용은 일제 강점기에 김일성이 만주를 중심으로 수행한 항일빨치산 투쟁에 관한 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력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활동」와는 다르게 연도를 별로 내용을 기술하고 있고, 과(Lesson)중심이 아닌 장과 절로 구성되어 있다.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당 적게는 6~7절 많게는 10절까지 이루어져 있으며 총 179쪽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장은 연도표기와 더불어 장의 중심주제가 나타나 있는 것이 김일성혁명활동의 교과서와 다른 점이다. 이 중심주제들은 각 장의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자는 특징이 있다.

“제1장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서는 조선혁명의 새로운 조선혁명의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지였다. [주체1(1912.4)-주체20(1931.12)]

제2장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서는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으로 발전시키였다 [주체20(1931.12)-주체25(1936.2)]

제3장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서는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전국적범위에서 일대 양양으로 이끌어올리시였다. [주체25(1936.2)-주체29(1940.8)]

제4장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서는 조국해방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주체29(1940.8)-주체34(1945.8)]

제5장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서는 우리 인민을 새 조국 건설으로 이끄시였다. [주체34(1945.8)-주체36(1947.2)]

제6장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서는 우리 인민을 사회주의길로 이끄시였다. [주체36(1947.2)-주체39(1950.6)]

제7장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서는 조국해방전쟁을 승리로 이끄시였다. [주체39(1950.6)-주체42(1953.7)]

한국교육개발원, 1997, p.53.

제8장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전후인민경제복구발전과 사회주의기초건설을 위한 투쟁을 승리로 이끄시었다. [주체42(1953.7)-주체49(1960.12)”³⁸⁾

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력사 5학년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력사 5」는 고등중학교 5학년 교재로 사용되고 있는데 1961년 1월부터 1970년 11월까지의 김일성의 행적을 다루고 있다.

총 2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력사 4학년 교재보다는 적은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고등중학교 3학년 교재와 동일한 시기를 다루고 있다. 그래서 내용의 소재나 주제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북한의 교육과정이 김일성 혁명 역사를 학교급별로 반복적으로 재학습하게 함으로써 학습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3학년교과서와 5학년 교과서의 차이를 보면 전자가 김일성의 통치과정에서 생겨난 일화들을 소재로 이야기체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반하여 5학년 교과서는 보다 일반적인 수준에서 역사적인 사건을 기술하고 있다.³⁹⁾

또한, 3학년 교과서는 일상적인 생활의 일화를 통해서 김일성의 인품과 지도력을 학생들에게 학습시키는 다분히 정서적인 접근법을 강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반하여 5학년 교과서는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 대한 자세한 언급들을 많이 포함시키고 몇몇 개념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한 설명도 곁들이고 있어서 전자에 비해서 다소 주지주의적 접근을 하고 있다.

마.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력사 6학년」

38)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력사」, 『고등중학교 4』, 평양:교육도서출판사, 1999, p.3-4.

39) 유균상 외, 앞의 책, p.88.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력사6」은 고등중학교 6학년 교과서로, 1980년 10월부터 1994년 7월 김일성이 사망한 날까지를 기술하고 있다.

다른 학년에서 배우는 김일성 혁명력사 교과서와는 다르게 제11장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께서서는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이룩하는데서 결정적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었다.”는 한 개의 장으로 총 50쪽으로 짧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하지만, 교과서의 마지막 부분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은 우리 인민과 세계 혁명적 인민들의 마음속에서 영생하신다.”라는 김일성의 죽음에 대한 내용을 부록 형식으로 제시하여 이로써 김일성에 관한 교과서가 마무리 짓음을 알 수 있다.

② 김정일 관련 교과서

여기서 분석하는 교과서는 고등중학교 1-3학년 김정일 혁명활동과 4-6학년의 김일성 혁명력사이다. 구체적으로 고등중학교 1학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 혁명활동」(2001년판), 2학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 혁명활동」(2001년판), 4학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 혁명력사」, 5학년(1999년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 혁명력사」, 6학년(1999년판)이다. 3학년의 경우는 교과서를 입수하지 못하여 분석하지 못하였다.

김정일 관련 교과서는 1,2학년은 설명 후에 비교적 자세한 일화가 들어 있으며, 고등중학교 5,6학년은 설명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일화는 적은 편이며 주로 요약하여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고등중학교 2,3학년에 나온 일화가 고등중학교 5,6학년에도 반복되어 제시되고 있다. 고등중학교 5,6학년에 제시될 경우에는 요약하여 이야기의 줄거리 형태로 제시되고 있다.

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 혁명활동 1학년

1학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 혁명활동 1」은 김정일의 탄생부터 유

년시절의 내용을 총 139쪽에 걸쳐 과(Lesson)형식의 46개 단원으로 구성된 교과서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 혁명활동 1」은 남한의 사회과 관련 내용과 비교할 만한 비교 근거를 찾을 수가 없으며, 김정일이 김일성의 뜻을 가장 잘 받들고 김일성을 가장 잘 보필하고 충성을 하는 사람이라는 내용과 김정일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⁴⁰⁾

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 혁명활동 2학년

2학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 혁명활동 2」은 김정일이 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976년까지의 김정일의 활약상을 주 내용으로 총 92쪽에 걸쳐 과(Lesson)형식의 30개 단원으로 구성된 교과서이다.

교과서의 내용은 크게 여섯 가지의 소재로 나누어진다. 김정일이 산업의 현 지 지도를 하는 내용, 김정일이 당을 위하여 애쓰는 내용, 김정일·김일성 우성화를 위하여, 또 김일성의 생일을 맞이하여 사업을 이끄는 내용, 그리고 김정일이 온정과 은혜, 사랑을 베푸는 내용 등이다.

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 혁명력사 4학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 혁명력사 4」는 고등중학교 4학년 교과서로서 1942년부터 1960년까지의 김정일의 탄생, 성장하여 청소년 학생들 속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었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비교적 짧은 내용으로 총 54쪽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 개의 장 “제1장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서는 청소년학생들속에서 혁명활동을 적극 벌리시였다 [주체31(1942.2)-주체49(1960.8)]”에 8절로 수록되어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 혁명력사4」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

40) 유균상 외, 앞의 책, p.140.

님 혁명활동1」과 유사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남한의 사회과 관련 내용과 비교할만한 비교근거를 찾을 수 없다.

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 혁명력사 5학년

고등중학교 5학년 교과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 혁명력사5」는 1960년 9월부터 1974년 1월 까지 김정일이 김일성의 주체 위업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벌이는 내용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 혁명력사 5학년는 총 59쪽으로 “제2장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 주체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하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벌리시었다. [주체49(1960.9)-주체53(1964.3)]”과 “제3장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유일적 령도를 철저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었다 [주체53(1964.4)-주체63(1974.1)]” 두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남한의 사회과와 비교 가능한 내용으로는 북한의 정치체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유일지배체제에 대한 내용이 “3장 2절 당의 유일사상체제를 세우기 위한 투쟁”에 있고, 세습체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3장 1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 전개”내용이 수록 되어 있다.

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 혁명력사 6학년

고등중학교 6학년 교과서에서는 김정일의 혁명력사를 1974년 2월에서 1994년 12월까지 다루고 있는데, 고등중학교 4, 5, 6학년 교과서가 시간순서대로 김정일의 행적을 다루고 있다.

총 3장으로 구성되었고 김정일의 혁명력사 교과서 중 가장 많은 135쪽으로 되어있다. 제4장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 화를 위한 력사적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었다’라는 제목이며, 그 밑에 14개의

절을 가지고 있다. 제5장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온사회의 김정일주의화를 더욱 힘있게 다그치며 사회주의 환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라는 제목으로 14절로 구성되어 있다. 제6장은 김일성의 사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우리식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고 더욱 빛내이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는 김일성을 우상화함과 동시에 김일성 정권에 대한 정당성 부여를 하며, 자신의 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3. 정치

남한의 정치 체제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입법부인 국회, 사법부의 법원의 권력분립 하에 헌법에 보장된 복수정당체제를 이루고 있고, 북한의 정치 체제는 사회주의국가의 보편적인 특성인 1당 지배체제라는 점과 북한의 고유의 특수성에 기인한 유일 지배체제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⁴¹⁾

두 나라의 정치 체제속에서 비교할 만한 개념은 첫째로 지배체제를 들 수 있다.

남한의 경우 권력분립하에 대통령 중심제로 이루어진데 반해, 북한의 경우는 유일지배체제로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일원적인 지배하에 있음을 각 국의 교과서를 통하여 알아볼 수 있다.

남한의 「정치」 교과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정부가 특정 기관을 중심으로 권력이 집중된 형태를 취하게 된다면 민주정치의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 독재정치로 흐를 가능성이 높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민주정치는 권력분립을 또 하나의 중요한 원리로 채택한다.

...법과 관련된 기능을 중심으로 권력을 분립시키는 것만으로 독재가 방지되는 것은 아니다.예를들어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법을 집행하여 권력을 남용할 경우 입법부나 사법부에서 해임, 탄핵 심판등의 수단을 통하여 행정부의 권력 행사를 견제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견제가 상호간에 균형을 이루게 될 때 권력의 남용이 방지 될 수 있기 때문이다.”⁴²⁾

남한의 「정치」 교과서는 정부의 통치권력을 입법권, 행정권, 동맹권등 셋으로 구분하고, 입법권은 의회에, 행정권과 동맹권은 군주에게 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로크의 권력분립론’과 국가 권력을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으로 분립시켜 독립된 세 기관에 종속시켜야 하는 것으로 본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론’을 소개하고 있고, 권력의 집중 현상을 막기 위한 권력 견제수단을 제시하

41) 통일부, 「북한개요」, 통일부, 2004, p.41.

42) 김왕근외, 「고등학교 정치」, 법문사, 2003, p.36.

고 있다. 또한, 특정기관의 권력 집중의 폐단을 강조하는 독재정치 문제점과 입법, 행정, 사법기관이 3권 분립 원칙에 맞게 서로 견제하면서 권력남용 방지책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은 조선로동당의 기본 노선이 당내 유일사상체계의 확립에 있다고 하면서,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령의 유일적 령도를 철저히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여 유일지배체제를 제도화하고 있다. 북한 사회에서의 수령은 ‘전당의 조직적 의사의 체현자’이며, ‘당의 최고령도자’로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생명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하는 령도의 유일 중심’이라고 하여 그 절대적 지위와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 것이다.⁴³⁾

이러한 유일지배체제를 반영하는 교과서 내용 ‘김일성과 김정일 관련교과서’ 모두 나타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운다는 것은 자기 수령의 혁명사상, 자기당 정책으로 전당을 무장시키고 모든 당원들을 수령과 당 중앙의 주위에 굳게 묶어세워 혁명사업을 해나가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의 유일사상은 곧 수령의 혁명사상이다. 따라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운다는 것은 곧 수령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전당을 무장시키고 모든 당원들을 수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며, 수령의 령도 밑에 혁명사업을 해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⁴⁴⁾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을 경애하는 수령님과 위대한 원수님께 충직한 김일성주의자로 만들 수 있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주체63(1974)4월 14일 일군들 앞에서 하신 연설 <<전당과 온 사회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세우자>>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제 원칙을 새롭게 내놓으시었다.”⁴⁵⁾

43) 북한 사회과학출판사 편, 주체사상총서 제9권 「영도체계」, 서울:지평사, 1989, p.80.

44)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력사」, 『고등중학교5학년』, 평양:교육도서출판사, 1999, pp. 63-65.

북한의 '김일성과 김정일 관련교과서'에서는 유일사상체제 확립을 위해 다른 견제수단 없이 수령을 중심으로 당은 물론 모든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유일사상체제를 확립함으로써, 북한의 교육목표인 '공산주의적 혁명인간'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둘째로 정당의 설립과 관련된 내용을 비교 할 수 있는데, 남한의 경우 헌법이 보장하는 복수정당제를, 북한의 경우 1당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복수정당제는 양당제를 의미하기도하나, 정당 설립의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치적 기본 질서의 하나에 속하기 때문에 2개 이상의 정당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복수정당제는 2개의 정당만을 인정하는 제도라고 하기보다는 단일정당제를 부인하는 제도라는 데 의의가 있다.

민주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복수정당제를 채택하여 이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 이들 국가 중에는 미국이나 영국처럼 양당제가 발달한 국가도 있으며, 프랑스나 독일과 같이 다수정당제가 발달한 국가도 있다.

남한의 「정치」 교과서에는 정당제도의 유형과 헌법 전문을 소개하면서 복수정당제를 설명하고 있다.

“정당체제는 분류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나눌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한나라에 존재하는 정당의 수를 기준으로 일당제, 양당제, 다당제로 분류한다. 사회구성원이 추구하는 가치가 다양한 현대 민주 국가에서는 이념을 달리하는 여러 정당이 존재하는 복수정당제를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다.” 46)

정당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국민의 여론의 형성 및 수렴이다. 따라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치」 교과서는 복수정당제에 대한 특징과 장단점을 소개해 놓고 있다. 또한, 정당의 분류기준으로 비경쟁적인 당의 존재 유무를 중심으로 일당제와 다당제의 차이점을 정치학 개론서의 내용 중심으로 소개해 놓

45)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 혁명력사」, 『고등중학교6학년』, 평양:교육도서출판사, 1999, p.21.

46) 김왕근외, 앞의 책, p.53.

고 있다.

북한은 1당 지배의 형태를 띠며 동시에 동일인물이 국가 및 당의 각급 기관장을 겸직하는 고도의 단일화체계를 이루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물론 북한의 경우에도 이러한 기본원리와 체제특성이 그대로 작용되어 왔다.

북한은 “조선로동당을 근로대중의 모든 조직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형태의 혁명조직”이라고 규정하면서 정권기관인 기타 정치조직으로서의 각종 사회단체들을 강화 발전시켜 나아가기 위해 당의 영도가 필연적이라고 하고 있는 등 이른바 ‘당국가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⁴⁷⁾

이러한 1당 지배체제는 북한의 고등중학교 4학년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력사」에서 나타난다.

“<<중과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당의 단결을 고수하기 위하여 당중앙을 옹호하는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 밑에 우리 당은 8월 전원회의와 당 대표자 회를 계기로 중과의 마지막 잔당을 쓸어버리었다. 그리하여 력사적으로 내려오던 중과의 오물을 청산하고 당의 통일과 단결을 확고히 실현하였다. 반중과투쟁에서 이룩한 이 위대한 승리는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혁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았다.”⁴⁸⁾

‘마지막 잔당을 쓸어버리었다’는 부분에서는 북한이 복수정당제가 아닌 일당제를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1당 지배만이 국가의 발전을 이룰 수 있고 국가의 단결된 힘을 보여 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1당 체제에 대한 의지는 김일성 김정일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함과 다당제에 대한 거부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북·미 관계에 대한 <로동신문>의 기사에서도 나타난다.

47) 이것은 북한에서 당의 영도를 강화하는 것이 “인민정권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 나가기 위한 확고한 담보”라고 강조되는데서도 알 수 있다. 「인민정권 건설경험」, 평양:사회과학출판사, 1986, p.133.

48)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력사」, 『고등중학교4학년』, 평양:교육도서출판사, 1999, pp. 157-158.

“ 제국주의자들은 <원조>를 리용하여 발전도상나라들을 정치적으로 예속시키고 있다.

서방금융기구들은 <차관>을 미끼로 발전도상나라들에 사영화, 민족화폐의 평가 인하, <다당제>, <민주화>, <인권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겉으로는 <과학기술협조>에 대해 떠들면서 과학기술이 뒤떨어진 나라들을 저들의 <과학기술식민지>로 만들고 있다.

그들은 발전도상나라들에서 중요한 과학기술부문들을 틀어 쥐고 이 나라들의 산업과 과학기술발전에 대하여 통제하고 있다. ”⁴⁹⁾

서방국가들의 다당제 강조를 정치적으로 예속시키고, 통제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다당제에 대한 반감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표 III -1>은 남북한 정체체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49) <로동신문>, 2001년7월 22일, 조선중앙통신.

<표 III -1> 남 · 북한 정치 비교 요약

정치	남 한	북 한
주요개념	3권분립체제 복수정당제	유일지배체제 1당지배체제
관련교과서	「정치」 I-4 ‘민주정치와 정부형태’ II-3 ‘정당과 이익집단’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 님 혁명력사 5」 3장 5절 ‘당의 유일사상체제 를 세우기 위한 투쟁’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 님 혁명력사 4」 6장 4절 ‘북조선 노동당 2차 대회’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크의 권력분립론과 몽테스키외삼권분립론 소개 ▪ 권력 견제수단과 독재정치 문제점제시 ▪ 정당제도의 유형 및 복수정당제의 특징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일지배체제 확립은 혁명사상을 굳건히 하는 것이라 주장함 ▪ 유일지배체제 확립의 제 원칙을 제시함 ▪ 1당 지배체제를 이루기까지의 과정과 필요성을 제시함
비교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력분립론과 복수정당제를 남한 정치체제의 특징으로 설명함 ▪ 각 나라의 권력분립상황과 정당제도의 유형을 정치학 개론서 중심으로 제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일지배체제와 1당 지배체제를 북한 정치체제의 특징으로 설명함 ▪ 유일사상체계확립과 1당체제를 김일성 교시중심과 당대회 연설내용으로 제시함

4. 교육

교육부분에 있어서 각 국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교과서에 나타난 교육에 관한 내용이 많은 부분 언급되어 있기보다는 남한은 헌법과 교육법에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과 사회주의 교육의 테제와 교육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것과 의무교육체제라는 점이다.

남한의 교육은 헌법 제31조 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에서 교육 기회 균등성을 강조하고 있고, 2항과 3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그 보호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에서와 같이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을 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남한의 「법과사회」 교과서에는 의무교육과 관련한 직접적인 내용이 없다. 다만, 헌법이 보장하고 있으므로 남한의 「법과 사회」 교과서에는 ‘학교생활과 법’이라는 소단원을 통해 교육권과 학습권의 내용과 교사와 학생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교육권이라는 말은 매우 다양한 의미로 사용 된다. 학생의 기본권으로서 교육을 받을 권리, 친권자인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어 공부하게 할 권리, 교사가 자신의 전문적인 소신과 자율성에 근거하여 학생들을 가르칠 권리 등을 교육권이라고 할 수 있다. 학습권은 학생이 능력에 따라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교사의 교육 활동에서의 자율성에 관한 권리, 신분보장에 관한 권리, 근로조건 개선, 복지후생에 대한 권리등이 있고, 교사의 의무는 적극적으로는 교육 및 연구활동을 할 의무, 학생을 보호하고 감독할 의무, 성실 복종할 의무, 등이 있으며, 소극적으로는 정치활동 금지 의무, 집단 행위의 제한, 영리 및 겸직 금지의무 등이 있다.” 50)

교육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은 헌법과 교육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만, 고등학교 「법과사회」 교과서에는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교사의 의무와 권리

50) 김범주의, 「고등학교 법과사회」, 서울:교학사, 2002, pp.80-87.

에 대해 소개해 놓고 있다. 이와 같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의무인 수락권과 교사가 전문적인 소신과 자율성에 근거하여 학생을 가르칠 권리와 의무인 수업권에 관한 법률 조항을 해석적으로 기술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 제 43조에서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간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라고 명시, 교육이념이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서의 육성임을 밝히고 있다.⁵¹⁾ 이러한 교육의 이념에 따른 교육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지침으로는 김일성이 교육문제와 관련하여 한 연설, 교시와 명령을 정리하여 1977년 9월 5일 공포한 ‘사회주의 교육에 테제’⁵²⁾가 있다.

1999년 8월에는 교육법을 채택하여 그동안의 교육에 대한 각종 교시와 지침을 종합함으로써 교육정책의 방향을 분명히 하였다. 동 법은 제1장 교육법의 기본, 제2장 전반적인 무의무 교육제, 제3장 교육기관과 교육 일꾼, 제4장 교육내용과 방법, 제5장 교육조건보장, 제6장 교육사업등 6장 52조로 구성되어 있다.

의무교육은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 4차회의 (1949.9.8)에서 1950년 7월 1일부터 전반적 초등의무교육제를 실시키로 하였으나, 한국전쟁으로 인해 실시되지 못하고 1956년 단계적으로 실시되었다. 즉 1956년부터 초등의무교육제(4년 인민학교)가 실시되고 1958년부터 3년제 중등교육까지 의무교육이 확대되었다.

1967년에는 9년제 기술의무교육이 전반적으로 실시되었는데 이는 4년제 인민학교(현 소학교)와 5년제 고등중학교(현 중학교)를 의무제로 한것으로, 고등중학교 5년 과정은 처음 3년간은 일반 중학교교육을, 그 후의 2년간은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을 습득시키는 기술교육으로 되어 있다.

51) 통일부, 앞의 책, p.377.

52)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는 제1장 사회주의 교육의 원리, 제2장 사회주의 교육의 내용, 제3장 사회주의 교육의 방법, 제4장 사회주의 교육제도, 제5장 교육기관의 임무의 역할·교육사업에 대한 지도와 방조 등 5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970년 11월 제5차 당 대회에서는 의무교육기간을 1년간 연장하여 10년제 의무교육으로 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이 결정에 따라 1972년 당 제 5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10년제 의무교육과 1년간 학교 전 의무교육’을 동년 9월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것을 결의 하였다. 1975년 9월부터는 이를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⁵³⁾이라 하여 의무교육을 시작하는 연령을 유치원 높은반, 취학전 나이인 만 5세로 1을 낮추었다.

북한의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은 이 기간동안 중등 일반지식교육과 기초기술교육을 결합시켜 모든 학생들이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북한의 교육정책에 대한 내용은 고등중학교 3학년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활동」 교과서 제13과 ‘11년제 의무교육의 넓은 대문으로’에 잘 나타나 있다.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를 깊이 헤아리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서는 전반적 9년제 기술의무 교육을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으로 발전시키고 교육내용도 그에 맞게 세우도록 하시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서는 새로운 11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나서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였습니다. 이처럼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세심한 보살피심과 크나큰 사랑이 있었기에 가장 선진적인 11년제 의무교육이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게 되었습니다.”⁵³⁾

북한은 교육에 관한 사업을 중요시 여겨, 현재 시행하고 있는 ‘11년 의무교육’ 정책 이전의 정책 내용을 연도별로 수록해 놓고 있다. 또한 교육의 목표나 내용보다는 교육정책이 시행되게 된 배경을 중심으로 교과서를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을 통한 ‘지덕체를 겸비한 공산주의적 새 인간 육성’이라는 목표 달성과 동시에 교육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이 국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3)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활동」, 『고등중학교3학년』, 평양:교육도서출판사, 2001, pp. 44-46.

위의 내용을 요약하면 <표 III-2>와 같다.

<표 III-2 > 남 · 북한 교육 비교 요약

교육	남 한	북 한
주요개념	수학권과 수업권	11년제 의무교육
관련교과서	「법과 사회」 III-1 ‘학교 생활과 법’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 님 혁명력사 3」 제13과 ‘11년제 의무교육의 넓은 대문으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교사의 권리와 의무를 서술함 ▪ 교육에 관련된 헌법과 법률 조항을 해석적으로 제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년제 의무 교육에 대한 실시 배경 및 방법을 소개함 ▪ 의무교육의 변천과정을 연도 별로 수록함
비교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의 직접적인 내용 보다는 학생과 교사의 권리 의무만을 강조 제시함 ▪ 교육에 관한 내용은 헌법과 법률에서 강조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적인 교육내용은 사회주의 헌법이나 사회주의교육체제에 표현됨 ▪ 북한의 교육목표는 교과서 곳곳에 묻어나 있음

5. 대외정책

한 나라의 대외정책은 일반적으로 자기 보존과 발전이라는 불변의 국가 이익을 달성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남한의 경우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과 외래문화의 주체적 수용이라는 보편성과 특수성을 바탕으로 둔 세계화와 국제화를, 북한은 자주성과 평등성의 원칙으로 한 대외정책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남한의 「사회문화」 교과서에서 남한의 국제관계의 특징을 세계화 국제화라고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시해 놓고 있다.

“세계화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의식이나 행동이 한나라의 국경을 초월하여 전 세계를 무대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즉, 생활의 질을 세계의 수준으로 평준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화를 강조하게 되면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국가의 힘이나 문화를 쫓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경계하면서 우리의 문화를 수출하여 세계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또한 국제화란, 한 나라가 경제·환경·정치·문화적으로 다른 여러 나라와 교류하는 것을 말한다. 세계무대를 전제로 하는 세계화와는 달리 국제화는 두 나라 이상이면 성립된다.한편, 우리는 국제화가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들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 정치·경제·문화분야 등에서의 대외 종속심화, 문화적 정체성의 약화, 비생산적이고 불건전한 외래 대중문화의 유입 등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대응 전략들을 국제화정책 속에 포함시켜야 한다.”⁵⁴⁾

위의 교과서 내용은 ‘국제화 세계화’의 특징을 주로 설명해 놓고 있지만, 세계화 국제화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로 하여금 비판적 사고능력을 기르게 함과 동시에 ‘국제화 세계화’를 통해 세계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배우게 할 수 있게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긍정적인 세계화 국제화의 모습만을 나타내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한의 세계화 국제

54) 김태현 외, 「고등학교 사회문화」, 서울: 금성출판사, 2002, p.167.

화 문제에 현실 대응 능력이 떨어질 우려도 있다.

북한은 1972년 헌법 제16조 평등과 자주, 상호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를 외교정책의 원칙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의 대외관계 적용 및 반제투쟁의 지지와 확산을 목표로 설정하였다.⁵⁵⁾

또한, 1980년 10월에 개최된 제 6차 당대회 총화보고에서 김일성은 당시의 국제정세를 “혁명력량과 반혁명력량 및 반제국주의 세력과 제국주의 지배세력 간의 치열한 투쟁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대외활동의 기본 목표로 “반제자주력량의 단결 강화와 비동맹운동의 확대발전” 및 “사회주의력량과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을 강조하였다.

1992년 헌법은 대외정책의 기본이념 및 원칙으로 자주, 평화, 친선을 규정하고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의 단결을 통한 침략과 내정간섭에 대한 반대 및 자주권과 민족적-계급적 해방을 대외정책의 목표로 제시하였다.⁵⁶⁾

1998년 헌법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주의권의 소멸을 반영하여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은 사라졌으나, ‘제국주의와 지배주의 세력’에 대한 연대투쟁 목표는 아직도 유효하다. 이것은 북한의 국제정세에 대한 대결론적 상황인식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컨대, 북한은 자주, 친선, 평화라는 외교정책의 이념과 원칙 하에 제국주의 세력으로부터 체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국제적인 여건과 환경의 조성 등을 목표로 외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55) 1972년 헌법 제16조에는 “대외관계에서 완전한 평등권과 자주권을 행사한다. 국가는 우리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및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맑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사회주의 나라들과 단결하고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과 단결하며 그들의 민족 해방투쟁과 혁명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라고 규정하였다. 1948년 헌법에는 외교정책의 이념과 원칙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56) 1992년 헌법 제17조에서는 “자주 평화 친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이며 대외활동원칙이다. 우리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지지 성원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를 반영하는 북한의 교과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온갖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의 길로 나아가는 세계 진보적인 인민들의 투쟁이 날을 따라 확대강화되었다. 위대한 김일성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서는 이로부터 주체71(1982)년 4월 당 중앙위원회, 최고인민회의의 합동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시정연설을 비롯한 여러 노작들에게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할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셨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세계진보적인 인민들은 자주성의 시대적 조류를 더욱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여야 합니다.>”⁵⁷⁾

위의 교과서 내용은 고등중학교 6년 「위대한 수령 김일성 혁명력사」 11장 10절 ‘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며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적 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투쟁’의 한 부분이다. 이는 ‘김일성 관련교과서’ 뿐만 아니라, ‘김정일 관련 교과서’에서도 자주성을 강조하는 부분이 많이 등장한다. 1972년의 대외정책부터 현재의 대외정책까지 북한은 국가적 자주성을 강조하면서 세계인민들과의 단결을 통한 침략 및 내정간섭에 대한 반대 및 자주권과 민족적-계급적 해방을 대외정책의 목표와 일치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은 체제의 보존·유지와 이데올로기적 목표 달성을 위함을 알 수 있다.

남·북한의 대외정책을 비교 요약하면 <표 III-3>과 같다.

57)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력사」, 『고등중학교6학년』, 평양:교육도서출판사, 1999, pp.44-46.

<표 III-3> 남·북한 대외정책 비교 요약

대외정책	남 한	북 한
주요개념	세계화·국제화	자주성·평등성
관련교과서	「사회문화」 VI-3 ‘급변하는 세계와 우리나라의 미래’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 님 혁명력사 6」 11장 10절 ‘온 세계의 자주 화를 실현하며 제국주의자들 의 반사회주의적 책동을 짓부 시기 위한 투쟁’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화·국제화의 개념과 특 징을 설명함 ▪ 세계화·국제화를 임하는 우 리의 자세를 탐구활동으로 제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자주성과 평등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제시함 ▪ 제국주의 세력에 반대하고 국가의 단결을 촉구하는 내용 으로 구성됨
비교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화·국제화의 강조로 한 국가의 국민이상의 세계시민 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함 ▪ 긍정적인 모습만으로 강조 하여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세계화·국제화 문제점이 부 각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의 자주성을 강조함으 로서 북한체제의 정당성확보 에 힘을 씀 ▪ 북한이 자주적 주권과 다른 서방국가와 동등한 독립된 국가임을 강조하고 있음

6. 경제

남·북한의 경제체제는 각 나라의 헌법조항을 통해 알 수 있다.

남한의 경제체제는 헌법 제119조 1항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과 2항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에서 그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북한의 경제체제는 사회주의 헌법 제19조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은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와 자립적 민족 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제20조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 협동 단체가 소유한다.’, 제21조 ‘국가 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 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 제34조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인민 경제는 계획 경제이다. ...’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남한의 경제체제의 특징은 혼합경제체제로 요약 할 수 있다.

경제체제의 분류기준은 현대 경제학의 한 분야인 비교 경제 체제론에서는 생산수단의 소유형태와 경제 자원의 배분 기구를 기준으로 하여 현대 사회의 경제체제를 여러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첫째, 생산수단의 소유에 있어서 사적 소유를 인정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를 폐지하고 국유 또는 공유로 하는가에 따라 두 유형으로 분류한다. 보통 전자를 자본주의체제, 후자를 사회주의 체제라고 한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소비재에 대해서는 자본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 모두 사적 소유가 인정되지만 토지, 지하자원, 자본설비 및 원료와 같은 생산수단의 사유는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인정되나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둘째, 경제자원의 배분과 조정이 가격기구를 통해서 개개의 경제 단위에 의해 자율적으로 행해지는가, 그렇지 않으면 국가 계획 기관이 작성한 경제계획에 의하여 행정적으로 행해지는가에 따라 전자를 시장 경

제체제 또는 자유경제체제라고 하며 후자를 계획경제체제 또는 계획경제체제 또는 명령경제체제라고 한다.⁵⁸⁾

남한의 혼합경제체제는 1930년대의 세계 대공황을 겪고 난 후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은 일부 기간 사업을 국유화하고 적극적인 공공정책을 실시하여 분배의 형평과 경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사유재산제도와 시장 경제의 큰 골격을 유지하면서 자본주의 체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부가 경제에 부분적으로 관여하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일부 소비재에 대한 소규모의 사기업과 자유시장을 허용함으로써 생산의 효율을 높이고 소비자의 선호를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남한의 경제체제는 「경제」 교과서에 설명되어 있다.

“ ...시장경제체제는 경제문제를 개인의 이기적 동기에 따른 자발적 행동에 따라 시장에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첫째, 사유재산권을 국가가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다.둘째, 개인이 자신 이득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되어야 한다.셋째, 자유 선택권이 다른 사람에게 손실을 끼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그런데 정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계획경제체제는 시장 경제체제와는 다른 특징을 갖는다, 첫째, 계획경제체제는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 않고 재산의 공유만을 인정한다. 둘째, 계획 경제체제는 시장에서의 이윤추구를 경제행위의 동기로 인정하지 않고 비경제적인 유인책을 중시한다. ...셋째, 계획경제 체제는 분배의 기준이 생산성이 아닌 생활의 필요이다. 넷째, 계획 경제 체제는 국민전체의 선호와 자원의 이용을 정부의 기술 관료가 중앙 집권적으로 결정한다. 두 경제체제는 각기 다른 장단점을 갖고 있다. 공평성에서는 계획 경제 체제가 장점을 갖지만, 생산성과 효율성에서는 시장 경제체제가 우위를 갖는다.”⁵⁹⁾

남한의 「경제」 교과서에는 경제체제를 구분하는 방법과 시장경제체제와 계획경제체제의 특징과 장단점을 제시하면서, 남북한의 헌법과 국민총소득(GNI)를 비교해 놓고 있다. 또한, 다양한 경제체제에 대한 우열을 논하는 내용

58) 김진영 외, 「고등학교 경제 교사용지도서」, 대한교과서(주), 2003, p.57.

59) 김진영 외, 「고등학교 경제」, 대한교과서(주), 2003, pp.36-37.

보다는 각각의 경제체제의 특징과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서술해 놓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친 개념 위주의 설명으로 시사적인 경제문제 접근이 힘들다는 비판도 있다.

북한은 경제체제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한 이후 지금까지 자력갱생의 원칙에 입각한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한다는 정책기조를 견지하여 오고 있다.⁶⁰⁾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의 기본정신이 되고 있는 자력갱생에 대하여 북한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신이 책임지고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여 나가는 립장과 정신”이라고 정의하고 있다.⁶¹⁾ 자력갱생은 경제적인 면에서는 생산수단에 대한 가내수요를 기본적으로 자체에서 해결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따라서 자력갱생원칙에 입각한 자립적 민족 경제의 건설이란 정책기조는 국가간 자원과 상품의 교류에서 해외자본의 도입을 비롯한 국제협력의 부진을 초래함으로써 경제성장의 가장 큰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북한의 경제 기조 중 하나는 중공업 우선정책이다. 북한은 분단이후 시종일관 중공업을 우선으로 하는 경제개발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공업 우선정책의 무리한 추진으로 인하여 최근 북한경제는 산업부문의 구조적 불균형에 시달리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농업제일주의, 경공업제일주의, 무역제일주의 등 3대 제일주의 방침을 제시하였지만, 1998년 선군사상을 앞세우면서 다시 중공업우선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구조적인 경제침체로 심대한 타격을 입은 적력, 석탄, 금속 등 이른바 ‘선행부문’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자력갱생원칙과 중공업우선의 정책을 기조로 북한의 경제체제는 두 가지의 특징을 갖는다.

북한 경제에서는 토지·생산설비 등 생산수단이나 그로부터 생산되는 생산물들은 거의 대부분 개인적으로 소유하거나 처분 할 수 없다.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의 기초가 되는 생산수단과 생산물이 사회화(집단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60) 통일부, 앞의 책, p.195.

61) 「조선대백과사전16」, 평양:백과사전출판사, 2000, p.216.

사회주의적 소유형태는 전 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로 대별된다. 전 인민적 소유는 국가 소유의 형태로 나타나며 협동적 소유는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 체제로 이행하는 과조기에 발생하는 사회주의적 소유의 한 형태이다. 이 밖에 북한에서는 극히 부분적이거나 개인 소유를 인정한다. 북한의 개인 소유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의 토대에서 발생한다고 하여 ‘사회주의에서의 개인 소유’라고 북한은 차별을 둔다. 개인 소유의 대상은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이나 노동의 질과 양에 따라 받는 분배 몫과 그것으로 구입한 소비품들뿐이다.

또한 북한 경제는 중앙집권화된 경제이며 유일한 지휘에 따라 움직이는 경제이다. 따라서 북한은 계획수립을 비롯한 모든 경제적 의사결정과 이에 필요한 경제정보의 흐름이 중앙당국에 집중되어 있으며 하부조직은 중앙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도록 되어있다. 이를 ‘중앙집권적 명령 경제체제’라고도 한다. 오늘날 북한과 쿠바 외에는 이와 같은 체제를 고수하는 나라는 없다. 이는 경제체제 자체의 구조적 모순과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른 경제운용의 복잡성으로 인해 중앙집권적인 경제관리가 기술적으로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상의 북한 경제 체제를 반영한 교과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서는 나라의 형편을 구체적으로 꿰뚫어보시고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로선을 제시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나라의 완전자주독립과 부강발전을 이룩하려면 반드시 자립민족경제를 건설하여 경제적 자립성을 확고히 보장하여야 합니다.>

.... 자립적민족경제는 또한 자기 나라의 경제 건설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것을 기본적으로 자체의 생산으로 보장하는 인민적인 경제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 인민을 첫 인민경제 계획수행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⁶²⁾

“...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께서서는 개인농민경리를 협동화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

62)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활동」, 『고등중학교3학년』, 평양:교육도서출판사, 2001, p.50.

게 이끄셨다.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농민경리를 협동화하는 것이었다.”⁶³⁾

북한의 교과서에서는 대외정책과 더불어 경제정책 역시 자립성을 강조하고 있다. ‘자력갱생의 원칙’을 통하여 국가의 모든 경제를 인민의 손으로 직접 생산하고 소비함을 강조하였고 이 생산을 중앙명령을 통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계획경제체제임을 기술하고 있다. 다만,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국제협력 부진으로 인한 더딘 경제 성장을 간과 한 채, 현 경제체제에 대한 일방적인 강조와 더불어 현재 북한의 경제 사정을 나타내는 객관적인 자료제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남 · 북한 경제체제를 비교 요약하면 <표 III-4>와 같다.

63)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력사」, 『고등중학교5학년』, 평양:교육도서출판사, 1999, p.73.

<표 III-4> 남 · 북한 경제 비교 요약

경제	남 한	북 한
주요개념	혼합경제체제	자립적 민족경제
관련교과서	「사회문화」 I -2 ‘경제체제의 변천과정’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 님 혁명활동 3」 제8과 ‘6개년 계획의 돌파구 를 여시기 위하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경제체제의 특징 및 장단점을 설명함 ▪ 남북한 경제체제에 대한 헌법조항을 비교 제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체제를 기본 정책별로 자세히 설명함 ▪ 경제계획을 연도별로 제시함
비교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한만의 독특한 경제적 특징 설명이 미흡함 ▪ 개론서 위주의 설명으로 경제문제 적응능력이 떨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만의 독특한 경제적 특징 설명이 이루어짐 ▪ 다른 나라의 경제체제의 설명과 국제협력에 대한 언급이 없음

IV. 남·북한 사회과 교육 내용의 비교 결과 및 문제점

1. 교육 내용의 비교 결과

남북한 사회과 교육과정과 교과서 비교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한 사회과 교육목표를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적 자질을 육성하는 데 두고 있다면, 북한은 사회주의가 요구하는 시민, 즉 사회와 인민을 위해 투쟁하는 혁명가를 양성하는데 두고 있다. 추구하는 목표의 방향은 다르지만, 남북한 모두 각기 체제유지를 위한 시민형성에 목표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교육과정의 변화과정에서 남북한은 공통적으로 정치적 변화에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해방 직후 남한은 ‘국민’을 북한은 ‘인민’과목을 두어 과도기의 교육과정기를 겪고, 북한은 소련의 영향을 받고, 남한은 미국의 영향으로 사회생활과가 도입된다. 한국전쟁 후 이데올로기의 대립과정에서 남한은 반공교육, 북한은 주체사상 교육으로 파행과 왜곡을 겪는다. 특히 북한은 김일성·김정일 유일사상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김일성·김정일 관련과목이 등장하게 된다. 1980년대 후 남한은 민주화의 영향으로 통합을 기본으로 사회과의 본질을 추구하고, 학문적 요구가 교육과정 변화에 큰 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북한은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경제난으로 체제 붕괴의 우려 때문에 오히려 사상교육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특히, 김일성 사후 김정일 후계체제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김정일 관련 과목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셋째, 교과서의 경우 남북한은 국가 주도형의 교과서 정책과 개발을 택하고 있으며, 북한은 더욱 뚜렷하였다. 교과서의 외형적인 체제와 내용 체제면에서는 북한의 교과서가 비교적 단순하고 간략한 형태를 지니고 있었으며, 남한 교과서가 더 학생중심으로 제작되었다. 교과내용의 경우 남한은 정치·경제·사회문화·법과사회의 영역을 고루 담고 있으며, 사실과 개념전달이 비교적 객관

적으로 기술되고 있다. 지식 위주의 민주시민교육보다 능동적이고 실천적인 학습을 꾀하고 있으나, 내용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교과서는 내용이 김일성·김정일의 행적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사실과 개념의 전달도 객관적인 기술보다 감정적, 정의적 측면이 강조되어 서술되고 있다. 또한 김일성의 교시와 김정일의 말씀이 학습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넷째, 남·북한 교과서의 비교 가능한 개념으로 정치체제, 교육, 대외정책, 정 체체제 네 분야로 나누어 비교를 해본 결과 정치체제의 경우, 남한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입법부인 국회, 사법부의 법원의 권력분립하에 헌법이 보장된 복수정당제를 기초로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의 정치체제는 사회주의 국가의 보편적인 특성인 1당 지배체제라는 점과 북한 고유의 특수성에 기인한 유일 지배체제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런 정치체제의 특징을 남한은 정치학 개론서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고, 북한의 경우는 조선로동당 당 대회 때의 정치적 상황을 기준으로 정치체제를 기술해 놓았다고 할 수 있다.

교육부분에 있어 남한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기회 균등성과 9년제 의무 교육을 강조하고 있고, 북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11년제 의무교육을 강조하고 있어 의무교육에 관한 남·북한의 입장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교과서 제시 방식에서 남한은 법률 중심으로 제시한 반면에 북한은 현재의 의무교육제도가 생기게 된 배경과 과정을 김일성·김정일 교과서 전반에 걸쳐 제시하고 있다.

대외 정책에 있어서 남한은 세계화·국제화를 주장하고 북한의 경우는 국가의 자주성을 강조하고 있다. 남한의 경우에는 교과서에는 국제화·세계화라는 대외 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교과서의 「탐구활동」을 중심으로 유추할 수 있었다. 북한의 경우 1972년, 1992년, 1998년의 사회주의 헌법을 기초로 하여 대외정책을 제시해 놓은 내용은 김일성·김정일 교과서에 년도 별로 설명해 놓고 있다.

경제체제에 있어서는 남한은 혼합경제체제를 북한의 경우는 자력갱생원칙과 중공업우선의 정책을 기조로 한 사회주의 경제체제와 중앙집권적 명령체제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남한의 교과서는 생산수단의 소유형태에 따른 자본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 경제자원의 배분기구를 기준으로 하는 자유경제체제와 계획경제체제에 대한 설명과 남한의 경제체제의 특징인 혼합경제체제를 설명해 놓고 있다. 아울러 남·북한의 경제체제를 보장하는 남한의 헌법과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의 조항을 제시해 놓고 있다. 반면에 북한은 경제부흥을 위한 인민경제계획들을 제시하고, 북한의 경제에 대한 내용을 비교적 다른 부분에 비해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2. 교육 내용의 문제점

1) 남한

첫째, 사회과 교육 방향의 모호함과 다중성을 문제로 들 수 있다.⁶⁴⁾ 우리나라 광복이후 사회과 도입시기부터 제 2차 교육과정 시기인 1972년까지는 경험 중심 교육관에 바탕을 둔 사회 기능 중심의 사회과 교육이 주축을 이루었다. 제 3차 교육과정 시기인 1973년부터 1981년까지는 한국 국내의 상황이나 문제점을 고려하면서도 사회과학 중심의 사회과 교육이 시도되었으며 1981년 시행된 제 4차 교육 과정에서는 인간 중심의 사회과 교육관을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제 5차 교육과정시기인 1987년부터 미래주의 사회과 교육관을 보완하였으며 1992년 6차 교육과정에서는 상황 해석적 관점을 고려하고,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구성주의 교육관에 기초한 학습자 중심 교육을 반영함으로써 사회과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려 하였다. 그 밖에 4차부터는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여 인구, 환경, 국제이해, 통일교육, 세계화, 정보화등에 따른 현대 사회 문제 등을 반영하였다.

이로 인하여 한국 사회과 교육의 본질적인 성격이 계승 발전되는 모습을 찾기 어렵고 사회과 교육과정의 구조나 방향에서 다중성을 띠고 있다.

둘째, 추상적인 시민성 교육목표 제시를 문제로 들 수 있다. 시민성(citizenship)은 미국에서도 1915년과 1916년의 보고서의 이래로 사회과의 주요 목표로서 받아들여져 왔으며 이러한 점은 우리나라에 사회과 도입된 이후에도 당연한 것으로 인정되어 왔다.

‘시민성’의 목표는 흔히 ‘선량한 시민’, ‘바람직한 시민’, ‘유능한 시민’, ‘사고하는 시민’ 등으로 불리어져 왔다. 그러나 ‘시민성’이란 곧 어느 나라 시민성인가 라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계속 논의 끝에 ‘주체성’을 강조하여야 한다는 입장

64) 한명희, 「사회과 교육의 과제와 전망」, 『사회과 교육』, 제34호, 2001, pp.17-18

에서 ‘국민적 자질’이란 의미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시민성 교육 목표는 7차 교육과정 개정시에 ‘민주 시민적 자질 육성 인간 형성’으로 변경되었다. 종래에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오던 ‘국민적 민족적 자각과 신념의 육성과 신념의 육성이 배제되고 제6차 교육과정에서부터 부각된 ‘시민적 자질’이 계속하여 강조되고 있으며, 그러면서도 개인과 사회가 균형적으로 고려되도록 개인의 발전과 같은 인간형성과 시민적 자질 및 사회의 발전을 동시에 강조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한국인으로서 바람직한 민주시민상이란 그 핵심적인 요소를 어디에 두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지식과 능력, 가치 태도 등을 갖춘 사람인가, 이러한 인간상의 함양 여부는 어떻게 확인되어야 하는가 특히, 사회과 교육에서 참조할 지도 지침과 전략은 무엇인가라는 점에 대한 애매모호한 점이 있다는 것이다.

셋째, 현행 사회과 수업은 주로 백과사전식 지식교육에 치우쳐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⁶⁵⁾ 사회과 수업의 보다 중요한 목표는 인간의 사회적 행위의 의미와 사회현상을 인식하는 안목과 관점을 배양하고, 더 나아가 과학적 비판적인 사고 기능과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기르는 데에 있다. 그런데 현행 사회과 수업은 주로 백과사전식 지식교육에 치우쳐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즉 기능영역 보다는 지식영역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나마 지식교육도 구체적인 경험적 자료나 실생활과 유리된 지식을 다루거나, 주제별 심화지식을 구축하지 못하고 잡다한 사실을 백과사전식으로 나열하고 암기하게 하는데 치중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에게 제시되는 지식은 대부분 교과서에 한정되며, 교과서는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많은 내용영역을 다 포함해야하므로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깊이 있거나 폭넓게 다루지 못하고 있다.

결국 사회 수업을 통한 올바른 인식과 태도의 함양 그리고 사고 능력의 개발은 도외시되고 있는 것이다. 지식의 본질은 정보 전달에만 있지 않으며 ‘사고하

65) 이영효, 「중등 사회과 교육과정 및 수업 개선 방안」, 『사회과 교육』, 제30호, 1997, pp.118-119.

는 능력'의 학습이 정보 획득과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볼 때, 많은 사회과 수업은 지식의 구성요소의 하나인 '판단'의 전수를 외면한 절름발이식 지식교육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정치영역은 예를 들면,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내용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지만, 민주주의의 원리들이 현실과 갈등을 일으켰을 때 학생들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구체적인 사례가 적다. 또한 현실정치 부분이 소홀하게 취급된 경향이 있어 민주시민의 자질을 키우기 위해 단순하게 지적인 측면의 강조로 끝나 현실참여가 어렵다는 아쉬움이 있다.

법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법 이론과 지식적인 요소를 강조하기보다 생활 속의 법을 많이 다루고자 하였다. 그러나 혼인과 이혼의 절차와 같이 고등학생들에게 불필요한 내용을 자세히 소개 하였고, 현실 갈등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 준법모형이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다.

경제영역은 주로 경제문제, 소비, 시장, 화폐와 금융, 재정, 국제경제, 경제체제 등을 다루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바탕으로 한 경제원리가 제시되어 있다. 학문적 이론접근은 줄이고 생활경제와 관련한 부분은 많이 늘리려고 한 의도가 보인다. 그러나 현실 생활과 관련한 경제이해를 위해 많은 자료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어, 이론과 현실 두 가지 측면 모두 오히려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사회문화 영역은 인간의 사회성과 문화, 사회적 상호작용, 사회조직, 사회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인간 사회의 보편적 특징과 함께 현대사회의 특징과 문제점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개념위주의 지적 접근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단점이 있다.

2) 복 한

우선 교육의 개념과 목적의 입장에서 보는 문제점을 살펴보자면 복한은 교육을 목적하는 바 인간과 관련지어 논의하고 있다. 교육은 지덕체를 겸비한 사회

적 인간으로 키우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하고 있어 표면상으로는 중립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개념과 상당히 달리하고 있다. 김일성 교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교육이란 사람들을 지덕체를 겸비한 사회적 인간으로 키우는 사업입니다.’⁶⁶⁾라고 하고 있어 표면상으로는 사회주의적 색채를 나타내지 않고 중립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이처럼 교육이 지덕체를 갖추도록 하려는 것은 사람들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의식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필수적인 조건이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덧붙이고 있어 주체사상에 입각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 보면 일반적인 지덕체의 의미와는 다른 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에서 지덕체를 겸비한다고 하는 것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답게 참여할 수 있는 상상과 지식, 그리고 공산주의적 도덕품성과 건장한 체력을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 혁명적 사상으로 무장한다는 것은 공산주의에 대한 신념을 갖고 지주, 자본가 계급과 착취제도를 미워하며,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터득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리고 공산주의적 도덕 품성을 갖춘다고 하는 것은 노동을 사랑하고 집단주의 정신을 옹호하는 것 등을 의미⁶⁷⁾하고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지덕체의 개념과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교육을 본질적으로 계급적 성격을 띠고 있는 존재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계급사회에서 교육은 계급적 성격을 띤다.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사이의 이해관계가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조건에서 모든 계급에게 복무하는 초계급적 교육이란 있을 수 없다.’⁶⁸⁾고 전제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의 교육은 자본가 등 착취계급의 이해관계에 따라 근로인민 대중을 자본가들의 착취와 억압에 순종하는 노예로 만드는 철두철미 반동적 교육이라고 매도하고 있으며, 노동계급이 실시하는 사회주의 교육만이 인간을 올바르게 키워낼 수 있는 진정한 교육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교육제도도 특정

66) 「김일성 저작 선집」, 6권, p.227.

67) 「공산주의자와 지덕체」, 평양:사로청 출판사, 1975, pp.19-39.

68) 「백과사전」, 평양:과학백과전서 출판사, 1982, p.423.

사회제도에 의하여 규정되며 주권을 잡고 있는 계급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노동계급을 비롯한 인민대중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고 있는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는 교육제도가 노동계급의 계급적 이익을 철저히 반영하며 근로인민의 아들딸에게 배움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준다⁶⁹⁾고 하고 있는 것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이처럼 교육의 개념을 계급사관에 의하여 해석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정치체제나 교육목적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 이념을 신봉하면서 인민이라고 호칭하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독재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들을 대표한 노동당이 교육을 비롯한 국가 전반을 영도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는 노동당 주석인 김정일이 모든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는 사실이다. 또한 교육에 있어서는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에 따른다고 하면서 어느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보기 어려운 독특한 교육구조를 갖추어 철저히 공산주의적 인간을 길러 내려 하고 있다. 1992년에 개정 공포한 헌법 제43조에서 ‘국가는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라고 명시한 조문이 이를 여실히 말해주고 있다.

실제적으로 교과서 내용에 있어서 북한의 사회과 교육의 문제점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김일성 혁명활동 및 역사’ 교과서와 ‘김정일 혁명 및 역사’교과서는 교시 유시를 중심으로 분석을 했는데, 이는 내용조직에 있어서 연역적인 원리에 입각해서 교과서가 구성된 관계로 교시 유시 자체가 바로 그 단원의 중심 내용이 되기 때문이다. 즉 교시와 유시는 각 단원의 첫머리에서 그 단원을 요약하는 역할을 하거나 끝부분에서 결론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결국은 정치사상의 핵심인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강조하는 것이 교시나 유시의 주목적이 되는 것이다.

둘째, 북한의 정치교육 내용들은 김일성 1인 지배체제의 합리화나 전체주의

69) 「백과사전」, 앞의 책, p.427.

로 미화된 김일성 김정일 세습독재체제의 선전이 일색을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실천적 차원에서 변질되어 있거나 사실성이 결여된 왜곡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장기간에 걸친 체계적인 정치교양 사업으로 소위 그들이 말하는 ‘공산주의적 혁명인재’가 의도한 대로 육성되었는가를 평가하는 것은 별문제로 하더라도 이 같은 북한의 정치사상교육의 결과로 인간의 존엄성이 말살되고 획일화된 인간의 양상 현상이 이루어지고 민족동질성이 파괴되고 통일에의 최대 난제인 이질감의 심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셋째, 북한의 경제교육의 경우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더욱 공고화하기 위하여 자본주의적 사고, 행동, 대상들을 철저하게 타도 내지 분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특히, 자본가놈, 지주놈, 미제침략자, 일제침략자, 낱강도 미제, 칠전지 원수 등 원색적인 표현을 서슴없이 사용하여 억압 착취의 대상에 대한 기억을 상기시키는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넷째, 북한의 법은 북한통합구조상 당 정책의 한 표현형식일 따름이며 당 정책은 수령의 혁명사상의 구현이라는 그들의 주체의 법 이론에 비추어볼 때, 법교육은 곧 정치교화의 유력한 수단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

V. 결 론

교육은 사회문화 체계 속에서 문화와 전통을 계승시켜주고 한 사회의 규범과 생활양식을 학습시켜 사회화와 자아실현을 성취하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한다.

흔히들 교육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사회체제 유지를 위한 사회화의 기능을 들고 있다.

사회과 교육은 바로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교과목이다. 교과교육으로서 사회과 교육은 다른 어떤 과목보다 인간의 가치관과 태도에 큰 영향을 끼친다. 남한과 북한의 ‘차이’를 가져오게 하는데 사회과 교육도 상당부분 기여하였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사회과에 대한 개념이 남북한에서 다르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과 교과서 비교가 개개 항목별 비교분석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남북한의 학제와 학령이 일치하지 않고, 특히 사회과는 남한과 북한이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단순비교로 그 특성을 제대로 드러낼 수 없다. 가능한 가치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였으나, 연구자가 갖는 분석의 틀도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교육을 객관적인 태도로 비교 해석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기존 연구가 많이 축적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한계와 함께 자료 수집이나 북한 원전 인용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 이 연구에 사용된 교과서의 경우도 원본이 아닌 복사본을 토대로 하였으며, 학년별로 필요한 교과서를 모두 확보할 수 없었던 점도 한계로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연구와는 달리 남한 사회과의 일반사회영역과 같은 개념의 북한 사회과를 김일성·김정일 교과 전체로 보고 분석 하였다.

사회과 교육과정의 남북한 대비를 통해 남과 북이 교육과정의 개편시기가 조금씩 다르기는 했지만, 유사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교육과정의 변천에 남북한 모두 정치적인 변화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물론 교

육이 정치와 전혀 분리될 수 없기는 하지만, 정치적 목적과 과제를 철저히 반영해야 한다는 원칙이 지나치게 강조됨으로써 정치 편향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북한의 경우 김일성·김정일 관련교과가 등장하여 오늘날까지 북한교육에서 정치사상교양을 목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남한의 사회과 교육은 점차 시대적, 정치적과제에서 벗어나 사회과 교육의 본질적 목적추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교과서의 경우 남북한은 개발방식에서 국가가 주도하고 있다는 것과 교과서를 교육자료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나, 내용적 체제와 주요개념에서는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남한은 객관적 개념과 사실 서술을 중심으로 학생활동 중심의 교과서 체제를 지향하고 있고, 북한은 객관적 사실과 개념의 서술보다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일대기를 중심으로 감정과 정서에 호소하는 기술을 하고 있어, 북한체제를 건설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또한, 북한은 모든 교육이 공산주의혁명인재를 양성한다는 목표 아래 전면적으로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교과목의 성격상 조금씩 차이는 있기는 하나 모든 교과목에 걸쳐서 전통적으로 정치사상교양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주체사상, 북한체제의 우수성, 혁명사상을 주입시키고 있다.

민주시민 양성을 목표로 개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지향하며 사회현상에 대한 합리적인 인식을 강조하는 남한의 사회과와 사회주의 지배체제에 필요한 집단구성원으로서의 공산주의적 개인양성과 체계이념의 사회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북한의 교육을 비교하면, 북한에서는 엄격히 말해 우리와 같은 사회과, 특히 일반사회와 같은 교과목은 존재하지 않으며 정치사상교육을 위한 도덕, 지리, 역사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 사회과 교육을 비교 분석한 결과 동질성 보다는 ‘차이’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남과 북이 통합이나 통일이 된다면, 사회과는 그 때 새로운 사회체제를 이해하기 위한 교과로 다시 구성 될 것이다. 그러나 사회과의 남북한 통합 교과서 구상은 다른 어떤 교과목보다 가장 어려

을 것이다. 새로운 '사회과' 내용은 더 이상 이질화의 길을 걷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남과 북이 서로의 교육에 대한 기초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1. 단행본

- 권오정 외, 「통일시대의 민주시민교육론」, 서울:탐구당, 1994.
- 교육부,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1998.
- 김경태, 「북한의 교육」, 서울:통일연수원, 1997.
- 김동규, 「사회주의 교육학」, 서울:주류출판사, 1988.
- 김형수, 「전공사회」, 서울:형설출판사, 2001.
- 김형수, 「공통사회 사회과교육론」, 서울:형설출판사, 2002.
- 리영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교육」, 평양:사회과학출판사, 1984.
- 문용린 외, 「학교통일교육의 새로운 전개 방향」, 서울:한국교육개발원, 1988.
- 민병천, 「신통일론」, 서울:고려원, 2000.
- 박찬석 외, 「통일교육론」, 서울:백의출판사, 2000.
- 북한연구소, 「북한연구론」, 서울:북한연구소, 1997.
- 손충기, 「연구방법론」, 서울:동문사, 2001.
- 송영대, 「북한의 통일교육의 실상」, 서울:평화문제연구소, 1999.
- 유균상 외, 「남북한 중등학교 도덕 사회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비교분석 연구」, 서울:한국교육개발원, 1997.
- 유영옥, 「북한학 개론」, 서울:학문사, 1997.
- 유영옥, 「유교수의 북한학」, 서울:홍익재, 2005.
- 유재천, 「사회문화: 교화 도구의 문제점」, 서울:을유출판사, 1988.
- 차배근, 「사회과학 연구법」, 서울:동문사, 1981.
- 통일부, 「북한개요」, 통일부, 2004.
- 통일부, 「통일교육 기본 방향」, 통일부, 1998.
- 통일교육원, 「통일문제의 이해- 통일환경과 남북관계」, 통일교육원, 1999.
- 한만길, 「통일시대 북한론」, 서울:교육과학사, 1997.

황정규 외, 「북한 교육의 조명」, 서울:법문사, 1990.

2. 정기 간행물

강상철, “북한의 중등 사회과 교육 현황”, 「사회과 교육」, 사회과교육연구회, 제26호, 1993.

김용신, “사회과에서 통일교육을 위한 남북한 관계요인의 분석과 교재화 논리”, 「사회과 교육」, 사회과 교육연구회, 제41호, 2002.

김재형, “북한의 학교교육 및 사회과 교육과정의 특징”, 「사회과 교육」, 사회과 교육 연구회, 제26호. 1993.

김태완, “남북이질성 극복을 위한 통일 교육”, 「교육학 연구」, 제33호, 1995.

김해성, “남북한 중등학교 사회과 교육내용 비교 연구:일반사회영역을 중심으로”, 「경상대 민족통일 논집」, 제14호, 1998.

엄재호 외, “남북한 교과서에 나타난 통일교육의 내용분석”, 「경북대 평화연구21」, 1996.

윤덕홍, “남북한 사회과 교육과정 비교”, 「경상대 민족통일 논집」, 제 14호, 1998.

이영효, “중등 사회과 교육과정 및 수업 개선 방안”, 「사회과 교육」, 사회과 교육 연구회, 제30호, 1997.

전숙자, “북한 공산주의 도덕 교과서에 나타난 인간관”, 「사회과 교육」, 사회과교육연구회, 제23호, 1997.

정영순, “북한 정치사상 교육의 변천과정 연구”, 「사회과 교육」, 사회과 연구회, 제32호, 1999.

한명희, “사회과 교육의 과제와 전망”, 「사회과 교육」, 사회과 교육 연구회, 제34호, 2001.

교육부,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해설서」,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2001.

교육부, 「고등학교 사회10학년」,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2003.

교육부, 「고등학교 정치」, 법문사, 2003.

교육부, 「고등학교 경제」,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2003.

교육부, 「고등학교 사회문화」, 금성출판사, 2003.

교육부, 「고등학교 법과사회」, 교학사, 2003.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활동」 고등중학교 1,3학년, 교육출판사, 2001.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력사」 고등중학교 4~6학년, 교육출판사, 1999.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 혁명활동」 고등중학교 1,2학년, 교육출판사, 2001.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 혁명력사」 고등중학교 4~6학년, 교육출판사, 1999.

3. 학위논문

고세연, “북한 고등중학교에서의 김일성 부자 이상화교육 실태 분석”, 송실대 통일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8.

김진국,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중등교육 교육목표 및 교육내용에 관한 연구”, 홍익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박진표, “통일교육의 교육내용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신현민, “통일교육 방법의 새로운 방안 모색에 관한 연구 -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명지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오연실, “남북한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비교 연구”, 송실대 통일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장세석, “북한의 고등중학교 교육에 관한 연구”, 경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조용구, “한국과 북한의 사회 교과서 비교 분석: 중학교 사회 교과서 공민부
분을 중심으로”,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3.